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는 것은 쉬우나
자기 잘못을 알기란 어려운 일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5월 28일) 2021년 7월 7일 수요일



"만해 스님, 동국의 영원한 스승"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에서 수학하고 제1회 총동창회장을 맡았던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다례재가 6월 2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처음으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묘주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박대신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다례재는 만해 스님이 동국문중의 자랑스러운 선대 어르신임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사진은 원행 스님이 만해 스님의 진영에 헌향하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코로나에도 '1만일 기적' 이어진다

불교계 대표 만일결사들 지속 운영 눈길

27년 5개월 간 매일 실천
다양한 수행법 · 나눔으로
장소 구애 없이 지속가능
포스트코로나 시대 '적합'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수행은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정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이 수행에 매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사찰을 찾아 도반과 함께 수행정진하기도 쉽지 않다. 온갖 번뇌와 갈등으로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심신을 굳건히 다지고 싶다면 '만일결사'를 추천한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한국불교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다양한 형태의 만일결사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나와 주변을 변화시키는 일상 수행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불교계 대표 만일결사가 잇따라 뜻 깊은 법석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6일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의 일환으로 출범한 '만일염불결사회'가 21주년을 맞은 것. 만일염불결사회는 결사도량인 **파주 보광사**(회주 보광)에서 21주년 법회를 봉행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법사로 새롭게 모셨다. 염불결사는 '아침에 예불하고 저녁에 감사하자'를 표어로 매일 칭명염불 1000번, 염불선 20분 등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027년 10월 22일 회향을 앞두고 있다. 031)723-9797

6월 25일에는 **울진 불영사 염불만일수행공동체 '만결회(만일결사회)'**가 10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불영사 만결회는 2011년 6월 15일 일운 스님의 원력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이 매일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취지다. 일운 스님이 매일 아침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마음편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풀어쓴 글과 사진으로 구성된다. 염불과 참선, 나눔 세 가지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도 결사회원들의 의무다. 나눔의 일환으로 매월 1만 원씩 모은 기금은 해외 결식아동 등을 위해 회향된다. 매년 1억 원 수준이다. 만결회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회향은 2038년 10월 31일이다. 054)783-5004

현재 진행 중인 만일결사는 염불과 절, 경전 독송 등 수행법을 중심으로 하되 나눔 · 봉사 등 대사회적 실천행도 함께한다.

서울 금강선원이 2011년 11월 26일 입재한 '보살사상 만일결사'는 1수행, 1바라밀행, 1봉사를 기본으로 한다. 독송, 염불, 참선 중 한 가지 수행법을 선택해 만일동안 수행 정진함으로써 내적성찰과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수행을 생활화하는 한편, 봉사를 생활화해 자비실천의 계기로 삼도록 했다. 결사회원들에게는 수행수첩을 만들어 매일 기록해 점검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회향일은 2039년 4월 12일이며 오는 8월 1일 입재 3600일을 앞두고 있다. 02)445-8484

법륜 스님이 이끄는 **정토회**는 1993년 3월 '정토행자 만일결사'에 입재해 현재 제9차 천일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의 행복과 정토세상 실현, 한국불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시작된 만일결사는 매일 아침 수행문 낭독, 108배와 명상, 하루 한 시간 마음책김, 매일 천 원 이상 보시, 하루에 한 번 마음을 내어 봉사 등으로 이뤄진다. 정토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기도문'을 작성하고 매일 초를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2)587-8990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는 2014년 8월 17일 '붓다로 살자' 운동 실천을 위한 만일결사에 입재했다. 회원들은 매일 〈법화경〉 독송과 108배, 명상, 사경 중 한 가지 수행을 선택해 지속하고 매년 동지에 팥죽나눔을 실천하는 등 봉사 · 나눔 실천을 이어간다. 특히 법륜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함께 수행정진하는 법석을 마련해 원력을 다지며 현재 3차 천일기도가 진행 중이다. 회향은 2042년 1월 1일이다. 031)332-5703

'절 기차게 하는 방법'의 저자 청견 스님이 이끄는 **절수행도량 법왕정사**는 2011년 11월 11일 '법왕수행만일결사_우리도 부처님같이'에 입재했다. 결사동참자들은 매일 108배 이상 절하고 빠알리경전을 공부하며 예불문을 독경한다. 또 매일 천 원을 보시하고 남을 위한 선행을 한 가지 이상 실천한다. 회향일은 2039년 3월 28일이다. 010-3487-0035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지계염불 만일수행결사'를 입재, 매일 〈아미타경〉과 장엄염불을 독송하며 일체 생명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해 오고 있다. 051)294-9300

불교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결사인 전국염불만일회의 염불결사도 있다. **전국염불만일회**는 1998년 8월 6일 결사도량 건봉사에서 1500여 염불행자들의 자발적인 결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 불교신행의 새로움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사 회향일은 2025년 12월 21일이다. 02)732-1206

개발제한구역 內 전통사찰 · 문화재 부담금 50% 감면

국회 본회의, 6월 29일 가결
이헌승 의원 등 개정 발의안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및 지정 · 등록 문화재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 개발제한 부담금이 기존 부과율 100%에서 50%로 감면된다.

국회는 6월 29일 제38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검토하고 수정가결했다.

해당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징,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사찰의 경우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율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00%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에 이헌승 의원 등 12인 의원은 지난해 12월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전통사찰 등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생활편의시설로 볼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다른 생활편익시설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며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면제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소관위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개정안을 검토해 전통사찰 등의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완화시킨 법안으로 수정가결했다.

당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토지형질변경 부담률을 면제에서 50%로 완화한 이유에 대해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전관리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의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내 개발 행위의 억제,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국회 제385 · 제386 · 제388회를 거쳐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6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 등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추진할 시 부담금 50%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측은 당일 백양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토지부담금 부과율 완화에 따라 부담금이 50% 감액되는 성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이 필요한 사찰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후 토지보전부담금 부과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완전감면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창종 50주년 맞아 영역별 기념사업 진행”

총지종 인선 통리원장 6월 28일 간담회서

다큐 제작 · 종조일대기 편찬
〈불사법요〉발간, 종법개정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총지종은 내년인 2022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현재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각 영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총지사에 이어 올해는 통리원과 종조전 및 본산 중창불사 등 정비 사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통리원 2층 반야실서 창종 50주년 기념 사업 및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종 50년 다큐멘터리 제작(10월) △종조인 원정대성사 일대기 편찬(11월) △불교총지종 50년사 발간(12월 6일)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선정사는 “종단 50년사(가제)와 종조 일대기 발간 및 출판 기념회를 위해 현재 원고 수정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총지종 50년 기념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50주년과 맞물려 핵심 사업중 하나인 정각사 득락전 헌공가지 불사, 법성사 헌공 불사, 제13회 경로잔치,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강화에 이어 최근에는 통리원을 비롯해 종조전(종조 진영 봉안) 및 본산 중창불사와 부산 덕화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완료했다”며 “총지종은 수행과 교화의 끈을 놓지 않고 종지 종풍 확립에 지속적으로 매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교총지종 역삼동 통리원은 1984년 완공된 3층 건물로 건축된 지 37년만에 이번에 새롭게 단장했다. 인선정사는 “중앙 통리원 주업무가 일선 포교당인 서원당 지원인 만큼 중앙 불사의 재정적 지원이 힘들어 그동안 중창이 어려웠다”며 “창종 50주년을 맞아 종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번 중창불사를 추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6월 28일 창종 5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선정사는 코로나로 중단된 국내외 행사 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10회 국제재가불자대회를 비롯해 자성일등을 지키고 7년이 되야 자격이 되는 수계법회, 제30회 청소년 어린이 법회 등이 잠정 연기 됐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및 정부 대응 지침 여부에 따라 준비 중인 사업들이 차기 집행부서 여법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불교총지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소개했다. 인선 정사는 “의식 · 의궤 재정비 및 통일 안을 담은 종기 50년(개정판) 〈불사법요〉를 발간하고, 종헌 · 종법 개정 추진위를 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기존 법회 시간이 불공과 설법을 포함해 2시간 정도 소요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평균 1시간 20분 정도로 축소됐다”며 “그동안 종단의 의식과 의궤 등이 복잡하고 길어 젊은 세대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젊은 세대들이 시대에 맞게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인선 통리원장은 “총지종은 창종 후 신도 수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연중 불공기간(90일)이 너무 길고, 종단 홍보가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한다”며 “창종 50년을 맞아 정사 · 전수님의 가사와 평상복 변화를 시작으로 종단 운영에도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지종은 최근 수행 기간에 따라 가사를 구분하고, 정사 · 전수들의 평상복을 검은색 양복과 한복서 회색 양복과 양장으로 바꿔 교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1월 28일 통리원장 6년 연임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되는 인선 정사는 총지종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묻는 질문에 “어려운 이웃을 껴안고 돌보는 게 불교의 근본 역할이다. 이에 종단의 운영 경비는 각종 부대 사업과 임대수입 등을 통해 마련되므로, 종도들의 보시금 만큼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임 기간중 종단 복지재단 산하 기관을 기존 두배인 11개로 늘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종단이 어려운 이웃과 신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 내일처럼 적극 도울 때 신도는 저절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선 정사는 또한 지난 6월 종단 사회복지재단 산하에 일어난 직원과의 불미스러웠던 일을 언급하며 “이번 일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한 센터장의 요구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기관장들에게 위탁운영 기간동안 근로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개선책도 마련했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인선정사는 “총지종의 미래는 스승의 개인적 역량과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직자인 스승님들이 수행자적인 인품과 언행, 청렴한 사고를 바탕으로 청정하고, 사회적 역할을 잘해 나간다면 우리 불교총지종은 분명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총지종은 1972년 12월 24일 원성 대종사의 서원아래 창종했으며, 현재는 승직자(스승) 70여 명과 교도 10만여 명, 사원 30여 곳을 산하에 두고 있다. 내년인 2022년 12월 24일이 창종 50주년 기념일이다.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 결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6월29일 백양사 회의에서 결의문 채택
총무원 등 종무 현안 보고도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사고본의 환지본처를 결의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경우, 이하 본사주지협)는 6월 29일 장성 백양사에서 제69차 회의를 열고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부회장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은해사 주지 덕관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선암사 주지 금곡 스님,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등 18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6월 29일 장성 백양사에서 제69차 회의를 진행했다.

본사주지협에 따르면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일제 강점기 때 약탈당했으나 원 소장처인 월정사와 불교계 노력으로 환수됐다. 그러나 환수된 이후 최적의 관리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원 소장처로 돌아오지 못한 채 현재까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특히 월정사가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박물관 수준의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을 건립하고 원 소장처로의 귀환을 준비해 왔으나 여전히 환지본처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본사주지협은 결의문에서 “인간의 삶과 정신을 담은 문화재는 과거를 거슬러 미래를 여는 고귀한 인류문화유산”이라며 “문화재의 가치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인식으로 배가되며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그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강구할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며 “고귀한 문화유산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환수되어도 박물관 수장고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사주지협은 “조선왕조실록 · 의궤가 원래 자리인 오대산 월정사로 돌아오는 일은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하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오대산사고본이 원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돼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무원은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대상자 82명에 대한 품서식 일정을 10월 경으로 보고했으며, 종단 현안 중 하나인 각종 규제법령에 대한 개정경과를 브리핑했다.

포교원도 이날 회의에서 포교종책개발 설문조사를 비롯해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등 추진과제를 브리핑하고 본사 주지 스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경우 스님은 “종단과 교구본사, 말사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진일보하는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본사주지협은 임기만료를 앞 둔 김상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차기 회의는 9월 중 고운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 장성=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제26대 호법원장 혜일 스님 취임

6월25일 법련사 대불보전서
“엄정한 법집행 · 화합 방점”



태고종 제26대 호법원장에 취임한 혜일 스님이 임기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승가의 위의를 바로 세우고 종도 권익 보호와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사진〉

태고종은 6월 25일 서울 법련사 대불보전에서 신임 호법원장 혜일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제주 정방사 주지 혜일 스님은 지난 4월 태고종 제142회 정기종회에서 신임호법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날을 기점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혜일 스님은 이날 종단의 최고 사법기관인 호법원의 수장으로서,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하는 한편 승가화합과 종도들의 권익보호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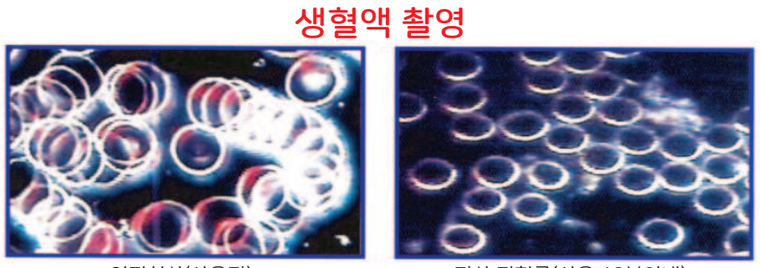
혜일 스님은 “종단 삼부기관의 한 축으로서 호법원이 바로서고 나아가 종단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도록 헌신과 열정을 다하겠다”며 “종단 큰 스님들과 종도 여러분의 원력이 함께할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우리 종단은 지난 사태로 힘든 시기를 거치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이 과정에서 종단의 위상과 기강, 사회적 신뢰도 추락했다”며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종단이 무너진 승풍을 진작시키고 화합승가를 이뤄낼 때 태고종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신임 호법원장 혜일 스님은 종단과 문도회 등에서 두루 요직을 역임한 분으로서 풍부한 경륜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며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의 위의를 높이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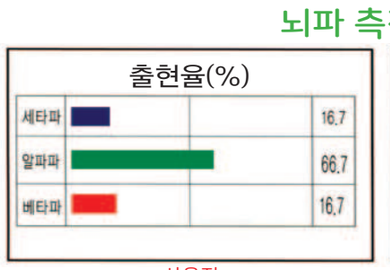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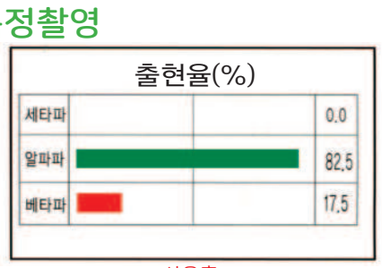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 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 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비누 : 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약 : 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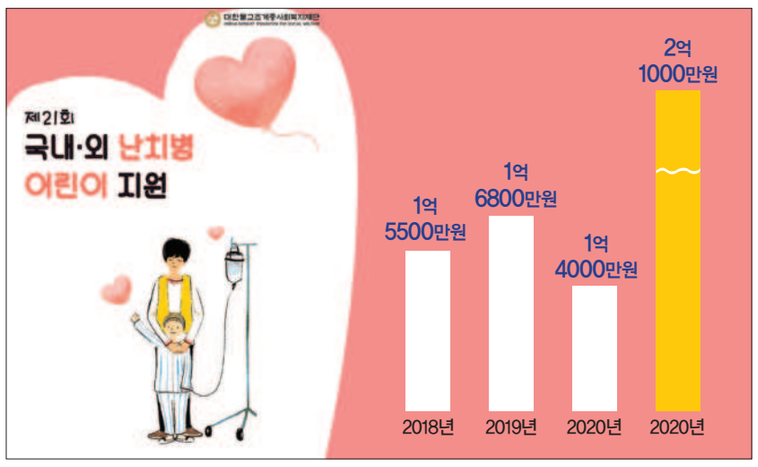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난치병 돕기 30% 증가…자비온도 높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021 난치병 환아돕기' 모연 결산

2020년 온라인 모금 전환해
자리잡으며 연 2~30% 증가
기부처 찾는 이연 기부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하루하루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자비온정을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21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진행하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에 동참한 불자들의 기부액이 30%이상 넘게 증가해 따뜻함을 더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제21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모연 결과 총 2억 1000여 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2018년 1억 5500만 원, 2019년 1억 6800만 원, 2020년 1억 4000만 원에서 약 30% 이상 많은 기부금이 답지한 결과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3천배 철야정진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 기금을 조성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모금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기부 결과는 3000배 정진이 중단된 와중에도 2020년부터 도입한 온라인 모금이 자리를 잡고, 위기 속에서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마음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유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팀장은 "지난해가 코로나19로 각자의 삶이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면, 올해는 더 어려운 난치병 어린이를 보살피는 여유들이 생기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오프라인 기부처가 축소되면서 발생한 이연기부도 온라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별방송을 진행하는 BBS 거룩한만남 측은 6월 22일 조계종에 특별방송 모연 성금을 전달하며 매년 2~30%씩 사연을 접하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모연에는 동화사, 불국사, 고운사(안동불교사암연합회, 의성불교사암연합회), 화엄사, 선운사, 낙산사, 흥천사, 안성 칠장사, 경기 흥법사, 명법사 등 많은 사찰이 참여했다. 특히 서울 조계종 복지재단으로 직접 찾아와 기금을 전달한 불자들도 많았다.

모연 기금은 국내 환아 20여 명과 해외 라오스 아동의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에 사용된다.

태어난지 5개월 만에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을 이어가고 있는 3살 시아양. 뇌 기형 장애를 갖고 태어나 시력저하에 여러 합병증을 앓고 있는 세솔 군 등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무형성빈혈로 2번의 골수 이식에도 3번째 골수 이식 수술이 필요한 정운 군의 경우 네이버 해피빈 등에서 온라인 모연이 진행 중에 있다. 수술 1회에 해당되는 400만 원과 의약품, 생활용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돕는 마음이 더욱 뛰어난 듯하다. 특히 자비희사의 마음을 실천하시는 불자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 모이고 더해지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모연된 성금을 지금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7월 9일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3000배 정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촌차문화 학술상에 박동춘 소장 선정

한국다도협회, 7월7일 시상
공로상엔 해인사 능혜 스님


박동춘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한국다도협회 창립자인 故 다촌 정상구 박사의 원력을 이은 '다촌차문화상' 학술상에 박동춘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선정됐다. 또 공로상에는 능혜 스님과 박희준 한국발효차연구소장, 교육상에는 정영진 부산여성미술협회 초대이사장과 양은순 · 최명자 부산여대 외래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사)한국다도협회(이사장 왕세창)는 최근 제20회 다촌차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촌차문화상은 우리나라 다도 교육과 한국전통문화 보급 · 발전에 기여한 다인(茶人)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1997년 故 다촌 정상구 박사의 호를 담아 처음 제정됐다.

故 다촌 정상구 박사는 한국 전통차문화 연구에 한 획을 그은 다인(茶人)이자 부산여자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다. 한국 전통차문화의 확산을 이끌겠다는 원력으로 부산여자대학에 차 관련 학과를 설치,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다촌차문화상은 한국다도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선정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학술상을 수여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한국전통문화대 겸임교수)은 응송 스님으로부터 전다계를 받아 초의선사 제다법의 5대 전승자로, 한평생 전통차 연구와 계승 · 발전에 매진해 온 학자이자 다인이다. 공로상을 수상한 해인사 원당암 능혜 스님은 불교고유의 전통 향방 전수자로서 1993년 '취운향당'을 설립해 우리나라 전통향 보급에 기여해 왔다. 정영진 이사장은 부산여대 교수와 차박물관장 다도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양은순 · 최명자 부산여대 외래교수와 함께 다도 교육을 통한 차문화 보급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왕세창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생략된 제19회 다촌차문화상을 올해 20회와 함께 선정해 수상의 영광을 드리게 됐다"며 "한국다도협회 40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다촌 정상구 박사님과 정남이 총장님께서 남긴 한국차문화의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종단 국내외정책 이끌 국제교류위원 위촉

조계종, 9기 위원 위촉식
해외사찰 전문사 첫 포함


조계종은 6월 30일 제9기 국제교류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해외사찰 교류와 국제포교, 각종 국제회의를 포함해 종단의 해외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갈 국제교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특히 9기 위원회는 처음으로 해외사찰 현장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돼 향후 해외 특별교구 활성화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국제정책 수립 및 대외 전략을 자문할 제9기 국제교류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당연직 위원장은 사회부장 원경 스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포교부장 정인 스님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1년 6월 30일부터 2023년 6월 29일까지, 2년이다.

위촉위원은 명법 스님(은유와 마음연구소 소장), 성진 스님(군종교구 사무처장), 정범 스님(중앙종회의원, 현 국제불교네트워크 대표), 문종 스님(뉴욕 백림사 · 前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총무), 경완 스님(2018 · 2021년 조계종 교육아사리), 조은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다.

9기 위원들은 △문화 · 인문분야 △국제포교분야 △해외교구 · 해외사찰분야 △국제교류 · 학술분야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이자 국제회의 참여와 발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해외포교 현장에서 활동해 온 스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향후 해외교구 · 해외사찰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제교류 분야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종단의 관심이 적었다"며 "새롭게 구성된 9기 국제교류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다양한 종교 관련 국제행사에서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특히 남북관계와 UN문제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자문을 통해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위원들도 그간의 해외활동 경험을 살려 종단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관부서인 총무원 사회부는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현장 활동 경험과 더불어 풍부한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국제전문가 그룹과 업무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구체적 종책 제안과 실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종책 수립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탄소중립기본법, 졸속 추진 안 된다"

불교기후행동, 6월 25일
실질적방안 마련 촉구해

정부가 5월 29일 대통령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국회는 이수진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기후위기 대안을 모색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불교기후행동은 6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교기후행동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민관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문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시스템이 지나치게 관중심적인 점 △로드맵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탄소중립법안의 비공개 졸속추진 등을 꼽았다.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관련 법안이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불교기후행동은 "탄소중립은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상정 이전에 법안을 공개하고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탄소중립을 향해 힘 있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불교기후행동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탄소중립기본법안 철회와 함께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명상’으로 코로나 블루 자살 막는다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살림법회 등 개최

코로나 블루 치유 위한 상담
유가족 케어 등 사업 다변화
선업 스님 “지속 관심 필요”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이 6월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교적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회적 압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홀로 떨어진 이들이 이러한 압박감을 견디는 방법을 몰라 더욱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명상으로 이들이 홀로 견뎌 내는 힘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인 ‘코로나 블루’와 자살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명상을 활용해 이를 치유, 예방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6월 29일 서울 센터포인트 필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부터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부산 범어사, 수원 봉녕사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명상으로 함께하는 몸 · 마음 · 쉼 생명존중 · 자살예방 생명살림 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으로 전개되는 이번 생명살림 사업은 불교계의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종교계 합동 프로젝트로 불교는 핵심 가르침인 ‘불살생’의 원리에 따른 생명존중사상을 가르치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 자살예방의 필요성 고취와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불교상담개발원은 하반기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부산 범어사, 수원 봉녕사 등에서 사무량심 명상, 화두 명상, 기도 · 염불 명상, 움직임 명상 등으로 구성된 4가지 생명살림법회를 진행한다. 법회에는 스님과 불자, 일반인, 자살 고위험군, 자살 유가족 등 28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생명살림법회서 선보이는 명상법들은 각각 생활 속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담고 있다. 사무량심 명상은 자비희사(慈悲喜捨)를 활용해 자비심을 통한 생명존중을 깨닫는 프로그램이다. 화두 명상은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법을 알게 한다. 기도 · 염불 명상은 힘든 시기 부처님을 염호하며 즉각 의지처를 삼을 수 있게 돕는다. 움직임 명상은 일상 속에서 걷기 등 몸의 움직임 속에 마음변화를 알아 심신의 건강을 되찾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법회마다 생명존중 리플릿을 배부하고 생명서약서 작성도 함께 진행하는 등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자살예방은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해결 가능한 문제지만, 종교계에서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일어나는 분야기도 하다”며 “자살 유가족 상담과 템플스테이 등 생명살림법회 외에도 소외층을 돌보는 데도 앞장서겠다. 생명존중사상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6월 4일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행복연구센터 소속 장경화 씨의 ‘온나(ONNA)’와 명상모임 늘봄 소속 나기태 씨의 ‘늘봄(Brain Off Mind On)’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했다.

문화사업단, 국제관광박람회 최우수 운영상

언택트 청정여행에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호응 커

코로나19 시대로 새롭게 도래한 언택트 여행 문화에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대한 큰 호응이 확인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안전한 여름휴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 문화사업단은 코로나 시대에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청정여행인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을 홍보했다. 연꽃등과 단주 만들기 등 집에서 간단하게 템플스테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키트도 무료로 배포했다.

국내외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상담도 진행했으며 SNS 해시태그 이벤트, 사찰음식 온라인 강좌 예약도 접수했다.

특히 소규모로 진행되는 기차여행 템플스테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템플스테이 할인,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등을 위한 무료 템플스테이 안내 등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안전하고 청정한 산사에서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홍보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부스 모습.

불교스카우트, 어린이 청소년 명상페스티벌

7월 31일 의왕 청계사서

조계종 어린이 · 청소년 포교단체인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은 7월 31일 의왕 청계사에서 ‘어린이 청소년 인성함양 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명상 페스티벌은 코로나 19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도 되찾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으로는 시작 명상, 명상 상담, 문화재 나무 찾기, 킴스 게임, 잠행, 숲 밧줄놀이, 명상놀이터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룹으로 나뉘어 불교스카우트 지도자와 컬쳐로드 연구원, 다르마 명상심리 상담센터 연구원의 지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작명상에서는 ‘어서 와, 명상은 처음이지?’를 주제로 명상자세 설명부터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이 왜 필요한가 등 기본 개념 교육이 진행된다. (02)722-9033

노덕현 기자

“‘차별금지법’ 핑계대기 멈춰라”

조계종 사노위, 국민의힘 당사 앞서 기도회

입장 번복 당대표 질타
면담 요청 공문 전달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27차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준석 당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발언을 번복하는 등 모호한 입장으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더이상 사회적 합의 · 종교를 핑계대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27차 기도회’를 개최했다. 당사 앞 길거리에 괘불을 장엄한 사노위 스님들은 목탁과 염불로 차별없는 세상을 발원했다.

특히 스님들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 축원문’을 낭독하며 누구나 보편적 인권과 평등이 실현되고 서로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거듭 서원했다. 기도에 이어 ‘평등을 발의하라’ ‘평등을 위한 용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피켓을 활용한 ‘차별금지법 제정송’ 율동을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차별금지법 찬성 발언을 한 뒤, 다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당이 2007년 이후 8번의 차별금지법 발의가 이어지는 동안 외면해 왔음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당대표로서는 시기상조로 본다”는 취지의 모호한 발언으로 논란을 산 바 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정치권이) 오랜 세월을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을 때 차별과 혐오로 인해 분노와 슬픔 · 절망으로 고통받았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아픔의 무게를 역지사지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10만 동의를 달성한 상황에서 이제 더이상 사회적합의를 방패삼아 변명하고 외면하고 침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자살 예방’ 주제, 〈불교문화〉 7월호 발간

진흥원, 각 종교 자살에 대한 시각 다뤄



(재)대한불교진흥원은 최근 월간 〈불교문화〉 7월호(통권 제151호)를 발간했다.

이번 〈불교문화〉 7월호는 ‘자살’을 주제로 자살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시작으로 불교와 기독교의 자살 이해를 살펴보고 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제시했다.

특집 기고에서 △박찬국 ‘자살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백도수 ‘불교의 자살 이해’ △심현주 ‘그리스도교의 자살 이해’ △오진탁 ‘자살 예방, 해법은 있다’ △허남결 ‘자살은 한 개인의 어리석은 죽음일 뿐’ 등을 소개했다. 학자들은 자살은 죽음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집착과 탐욕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그대로의 삶을 바라보고 생활 속에서 명상과 수행으로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이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지적한다.

진흥원 측은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회과학적 증거이기도 하다”며 “자살을 단순히 자살 행위자의 심리적, 정신병적 원인으로만 탓할 수도 없다. 7월호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불자로서 세상에 대한 따뜻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자살에 대해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리다”라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번 〈불교문화〉 7월호에는 불교와 생명과학, 일상 속 건강 지키기, 작은 것이 아름답다, 불교 시 읽기 등 문화 속에 깃든 불교와 철학 이야기도 함께 실렸다. 노덕현 기자



“불화, 눈으로 보는 불교사·사상”

〈한국불교회화사〉 발간한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



문명대 소장은 … 문명대는 1941년 출생으로, 경북대 사범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굴암 불상조각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중 울산 천전리, 대곡리 선사 암각화를 발견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는 러시아 연해주 발해사원지 발굴, 파키스탄 탁실라 간다라 유적 발굴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발굴 성과를 냈다. 정년퇴임한 2006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을 맡으며, 왕성한 연구 ·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조각사〉 〈한국의 불화〉 〈한국불교미술사〉 등 50여 편의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을 집필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은 어렵고 고되다. 누구나 갈 수 있으나 아무나 가지 못하는 그런 길이어서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세간에서 존경하는 이유도 새로 개척해나간 그 길이 후대에게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은 ‘불교미술’이라는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묵묵히 걸어온 학자다. 그만큼 문 소장이 보인 연구 성과는 가히 방대하다. 불교미술 관련 저서만 50여 권, 논문만 300여 편에 달한다. 그는 수많은 이정표를 남겼고, 현재 불교미술사학이 체계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초’ 수식어를 가진 학자

감히 문 소장을 ‘아무도 걷지 않는 길 걷는 학자’라는 수식을 붙이는 이유는 그를 통해 이뤄진 최초의 성과들이 있어서다.

역사학자를 꿈꿨던 문 소장은 경북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입학했고, 경북대 불교대학생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며 ‘불교학’을 조우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불교미술’에 관심을 가진 것은 군 제대 후 경북대 박물관에 근무하면서부터다. 박물관에서 문 소장이 한 업무는 유물 카드 정리였다. 그는 수만 점의 유물을 실측하고 특성을 파악하며 미술사의 기초를 알게 됐다. 경북대 대학원에서 ‘한국 석굴사원 연구’를 석사학위 논문으로 쓰면서 ‘불교미술’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이후 당대 최고 불교미술학자인 황수영 동국대 교수를 만나 동국대로 진학해 석굴암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석굴암 불상조각 연구’로, 석굴암 내 전체적 불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였다.

또한 문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 불화 개설서인 〈한국의 불화〉(1977)를 내놓았고, 최초의 불교미술개론서인 〈불교미술개론〉(1992)을 발간했다. 한국 조각들의 시대별 특징을 조명한 〈한국조각사〉(1977)도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다.

그의 이름을 세간에 알린 것은 ‘발굴’이다. 이는 불교미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교미술사학자 ‘문명대’는 한국 선사 유적 발굴의 쾌거라고 알려진 ‘반구대 암각화’ 최초 발견자이기 때문이다.

본래 문 소장은 원효 스님이 주석했던 반고사(磻高寺)를 찾기 위해 일대를 탐사했고, 그 과정에서 1971년 울산 반구대 선사 암각화를 발견했다. 그는 불교미술사학자였지만, 반구대 암각화를 10년동안 연구해 1984년 〈반구대 암벽 조각〉이라는 역작을 세상에 내놓았다.

문 소장은 해외 불교 유적 발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1993년 러시아 연해주 ‘코르사코프카 발해 사원지’ 발굴과 2004~2005년 파키스탄 탁실라에서의 ‘졸리안II 사원지’ 발굴이 대표적이다. 연해주 발해사원지 발굴은 우리나라 최초 해외 발굴 조사였고, 최초 발해 사원지 발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정년을 앞두고 이뤄진 탁실라 발굴에서는 부조상을 포함한 불상 50여 점과 동전과 못 등의 금속품과 토기 300여 점을 쏟아져 나왔다. 최고의 발굴 성과이기도 했다.

50년 연구 성과 집대성 역작

그런 문 소장은 최근 〈한국불교회화사〉를 발간했다. 이는 방대한 한국불화 작품을 통사적으로 체계화시킨 최초의 한국불교회화사 독립 개론서다.

〈한국불교회화사〉는 문 소장의 50여 년 연구 성과가 집대성된 역작이기도 하다. 이는 1977년 발간한 〈한국의 불화〉에서 회화사 장르를 독립시켜낸 것으로, 이 땅에 불교가 수용된 372년부터 1920년대까지의 한국 불화 도상과 양식의 변천을 시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책에 수록된 800여 도판들은 시대별 불화의 변화와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삼국시대부터 1920년대까지
한국불화 통사적으로 접근해
50년 불화 연구 성과 집대성

시대별 불화론 조명해 ‘눈길’
불화승 유파 계보들 총정리
800여 컬러 도판 이해 높여

팔순에도 현역 학자로 활동
반구대·한국조각사 집필중

그가 불화에 애착을 갖는 것은 당시 시대의 상황과 사상, 신앙 등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불화 특징 중 하나가 눈으로 보는 불교사이자 불교사상입니다. 유가유식종의 상징이자 주 예배대상인 미륵존상화나 화엄종의 예배대상인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의 설법도들은 종파적 사상을 도상화한 것이죠. 또한 불화 화기에는 시주자, 화주, 불화 담당자, 불화승 등이 담겨 있는데 이는 불화를 조성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문 소장은 2006년 퇴임 후 자료와 그간의 연구성과를 수집해서 2010년부터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갔고 2015년 1차 집필을 완료했다. 이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 연구과제로 선정되면서 이를 5년 동안 보완해 750쪽에 달하는 대작을 완성했다.

“사실 〈한국의 불화〉를 발간한 뒤, 10년 안에 독립된 회화사 개론서를 발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정도 있고, 체계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2006년 정년퇴임 후에 ‘이제 미뤄왔던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집필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기존 집필을 보완하려고 일본에 소장된 고려불화와 조선 전기 불화를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성에만 10년이 걸렸죠.”

한국불화의 변천 ‘한눈에’

문 소장에게 발간된 〈한국불교회화사〉의 장점을 물었다. 곧바로 “한국불화의 역사(시간)적·공간적 특징들을 체계화시켰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한국불교회화사〉에서 모든 시대의 ‘불화론(佛畫論)’을 새로 정리해 기술했다. 시대별 불화론이 이해돼야 불화의 흐름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다.

“불화의 흐름과 변천을 연결시키면 비로소 불교회화사가 됩니다. 그 흐름을 한눈에 조망하기 위해 불화의 조형사상이나 시대상 도상 특징 등을 체계화한 것이 불화론입니다. 각 시대별 불화론은 그 시대의 대표적 불화이론들을 선별한 것이어서 각 시대의 불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에 따르면 문 소장은 삼국시대의 불화론을 통해 당시의 불화가 대승불교를 기본으로 성립됐으며, 대승불교의 다양한 학파들의 사상을 기반한 미륵경변상도, 아미타변상도, 본생도 등이 조성됐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 역사를 통틀어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고려시대 불화는 기록에는 여러 종류와 많은 형식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존하는 예는 많지 않다. 양식적 특징으로는 본존과 협시의 상하 2단의 엄격한 구도의 전형적 고려불화 양식(제1양식)과 본존보다 협시가 현저히 작은 상하 2단 구조(제2양식), 수묵화 양식으로 나눠진다.

조선불화론에서 대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숭유억불의 풍조로 인해 사상적으로 유교적 불교시대가 돼 문파에서 문중불교로 전환되고 유교적 이념에 따라 충효사상이 집중적으로 대두된다. 각종 재의식이 성행함에 따라 삼장도, 감로도, 신중도 등의 괘불화가 성황을 이룬 시기이기도 하다. 양식적으로는 고려 예배존상화의 특징인 2단 구조가 사라지고, 경변상도와 비슷한 본존불을 둘러싸는 중심 구도법이 주를 이룬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각 지방별, 유파별 화파들이 파악되는 것도 특징이다.

실제, 문 소장은 조선 후기와 말기 불화의 특징으로 화승 유파의 대두와 다양화를 강조하는데 이에 대한 계보를 도표로 정리했다.

“벽암 각성 스님의 경우 임진왜란 이후에 소실된 사찰을 재건하는 불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건축부터 불화, 불상 작가 스님들을 데리고 다녔죠. 사찰 전각부터 그 안에 불상과 불화까지 입체적으로 조성했던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이후 불화들은 지역과 유파별로 화풍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불화론에 작가론이 들어가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나는 현역 불교미술학자

올해 꼭 팔순을 맞은 문 소장은 아직도 현역이다. 동국대 교수에서 퇴직한 것이지, 학자로 은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집필에 열중하고 있다. 당장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을 맞아 자신의 저서 〈반구대 암벽 조각〉을 보완한 개정판을 올해 발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내년에는 〈한국조각사〉 개정판 발간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초교는 완성한 상태고 2교를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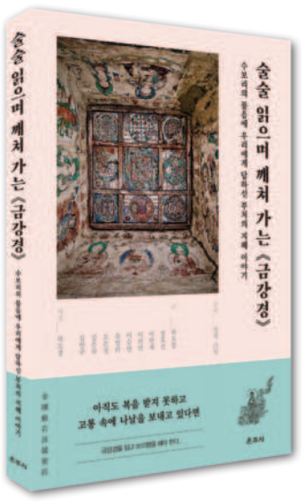
“〈한국조각사〉는 당시 연구가 미진해서 보완할 부분이 많아요. 벌써 40년 정도가 지났으니 후대 연구가 얼마나 많이 됐겠습니까. 이를 정리해서 한국의 조각사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하려 합니다.”

‘연세도 있으니 이제 쉬셔도 되지 않는가’라는 우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 한다”는 문 소장의 현답이 돌아왔다. 그는 ‘눈을 밟으며 길을 갈 때에는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후세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니(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라는 서산 대사의 게송을 학문으로 실천하는 수행자다.

“아직도 알고 싶은 것이 많다”는 노학자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불자와 이웃종교인들이 함께 만든 금강경!

술술 읽으며 깨쳐 가는 금강경



복잡한 해설 없이 경문을 읽어 가며
이해하고 깨우치는 특별한 책!

- 9명의 역자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세존과 수보리 장자의 대화를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번역하였다.
- 독자들의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히말라야 문화권의 풍광과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함께 수록하였다.

하도겸 정호선 이한세 이외련 이승만 유영희 오은정 김은하 김연주 저
신국판 변형/무선/264쪽/값 16,000원

육조혜능의 본음에 가깝게 살아난 육조단경!

4본대조 돈황본 육조단경 정본역주

『육조단경』의 원음을 살리기 위해
정본화定本化한 세계 최초의 작업!

- 육조단경의 다양한 판본 중 가장 고층에 속하는 ‘돈황본’의 4종의 이본을 철저히 교감하여 원텍스트에 가장 가깝게 재구성하였다!
- 한문학, 불교학, 사학, 철학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수불스님이 감수를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조영미 최연식 김종욱 김천학 박인석 정본역주/수불 감수
국판 변형/양장/344쪽/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장안사, "폐기물 매립장 건립 폐기 하라"

부산시 항의 방문… 대규모 집회 불사

6만 여 평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장안사 부지서 1km 거리에 위치 수행 및 생태환경의 심각한 위협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기장 장안사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 항의 방문한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과 장안읍대책위원회.

부산 기장 장안사 인근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반대 장안읍 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김정대 · 이하 장안읍대책위)는 6월 30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장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책위 공동위원장 무관 스님(장안사 주지)을 비롯해 구경민 부산시의원,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 황윤철 기장군의원, 김정대 상임위원장, 홍순미 총괄본부장, 김성구 대책위원장 등 장안읍대책위 관계자와 부산시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동석했다.

무관 스님은 "환경조사에 따르면 해풍의 영향으로 장안사로 악취가 몰려 올 것이란 진단이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며 "폐기물매립장 사업지가 장안사서 불과 1km 떨어져 있어 악취는 천년고찰 장안사 수행환경과 생태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완강한데 계속 절차 강행하는 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다"며 "행정부처가 사업 검토를 지속한다면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 것"이라고 의사를 전달했다.

구경민 부산시의원은 "건립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수없이 많은 의견 수렴 과정 속에 정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2~3년간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사업계획 단계로 법률상 저촉 여부만 현재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며 "계획과 허가는 관계가 없다. 저촉 사항이 확인되면 당연히 진행할 수 없고 이뤄질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생태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장안사와 장안읍대책위는 6월 24일 장안사 설법전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반대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장안읍대책위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천년고찰 장안사를 비롯해 장안 읍민과 기장 군민 전체를 죽이는 행위"라며 결사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해당 사업지 인근에는 천년고찰 장안사 및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현재 조성 중인 치유의 숲 등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용도까지 바꿀 계획인지 묻고 싶다"며 "토지용도까지 바꿔가며 개인 민간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특혜를 주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부산시에 접수된 장안읍 명례리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주민 전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장군은 6월 3일 부산시로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관리형매립시설)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기장군 의견협의 공문을 받은 상태다. 접수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71-1번지 총면적 20만 1275㎡(약 6만 886평)에 사업지가 조성되며 이중 매립면적은 10만 2602㎡, 매립용량 311만 7026㎥에 달한다. 매립기간만 약 10년의 규모다. 사업주체는 부산시에 폐기물처리업 사업을 신청하고 관련부서 검토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한국전쟁71주년 희생자 추모 위령재 열려

가야불교문화원, 6월 25일 김해충혼탑서 개최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은 6월25일 경남 김해시 삼방동 충혼탑 앞에서 '한국전쟁 71주년 희생자 군 · 경 · 민간인 추모위령재'를 봉행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김해 불교계가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영가들을 추모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대표이사 성남)은 6월 25일 경남 김해시 삼방동 충혼탑 앞에서 '한국전쟁 71주년 희생자 군 · 경 · 민간인 추모위령재'를 봉행했다.

추모위령재는 1부 △의식 △옹호게 △권공 △영반의식 △배송 △조가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반야심경 △찬불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념사 △조사 △발원문 △6 · 25노래 △헌시 △사홍서원 순으로 마무리 됐다.

행사에는 가야불교문화원 대표이사 성남 스님, 해경사 지현 스님, 선파 스님, 능산 스님 ,록원 스님, 이상국 김해불교사암연합신도회 회장, 박수환 전몰유족회 김해지 회장 등이 동참했다.

대표이사 성남 스님은 "사부대중의 한마음 한뜻을 담아 추모 위령재를 모시게 되어 감사하며 위령재를 모셔 유족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몸 바치고 한 송이 꽃으로 산화하신 우리 선배님들의 영혼들을 되새기자"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건강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6월 25일 보양 건강식 전달식을 진행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은 6월 25일 관내에서 보양 건강식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후원 물품은 삼계탕 130개, 육포 130개, 피로회복 음료 250병(200만원 상당)이며 후원은 고려대 여성체육인회, (주)하림, 한국녹색환경여성연합이 나서 물품을 기부했다. 복지관이 전달한 후원물품은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부산진구 개금3동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황인남 고려대 여성체육인회 회장은 "어떤 지역을 불문하고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은 항상 행복하다"며 "추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방역물품 및 다양한 후원 활동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강열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개금3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정성껏 후원해주신 물품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운곡 스님, 소외이웃 위한 선명서화展

7월 9~15일 해운대문화회관서

'선명서화'라는 새로운 불교미술을 개척하고 있는 부산 관음사 운곡 스님이 소외 이웃을 위한 전시를 진행한다.

운곡 스님은 7월 9~15일 해운대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선명서화전을 개최한다. 운곡 스님은 선명서화를 디지털 아트에 접목해 새롭게 선보인다. 선명서화 디지털 아트는 스마트폰으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삽입됐다. 작품에 인쇄된 QR코드를 기기에 인식하면 명상음악 및 금강경 독송 등을 들을 수 있다.

운곡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이웃을 위해 전시를 마련했다"며 "사중득활(死中得活)이란 말처럼 모두 힘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오픈 행사는 7월 9일 오후 1시 30분이다. (010)2458-086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신흥사 아미타불, 국보 심의 본격화

김현모 문화재청장 6월 30일 국가지정 현황 방문 검토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울산 신흥사를 방문하고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39호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불사의 가치를 공유했다.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39호인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6월 30일 울산 신흥사(주지 석운)를 방문해 좌상과 복장유물을 살펴보며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유했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 유물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지 석운 스님은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 후기 17세기 전형적인 불상이다. 현재 17세기 작품 대부분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다. 현재 신흥사 삼존좌상은 늦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심의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사찰 측에서는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정되면 울산 북구에서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가 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불석으로 조성되었으며 중앙 아미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도 조성돼 있다.

확인된 복장물은 〈묘법연화경〉과 후령통, 조성기 등이 있으며, 시주자 명단도 주목받고 있다. 시주자 명단은 울산 부호적대장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작성돼 있고 지역명까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주자들은 대부분 신흥사 인근에 거주하던 인물들이다. 또 좌협시 관음보살의 복장에서 나온 '신조조상불기'에 따르면 이들 불상은 1649년 신흥사서 조성됐다.

주지 석운 스님은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을 가지며 미적인 부분이 섬세하고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경없는 민들레, "네팔 환자들 숨쉬게"

산소통 구입 위한 모금 활동 펼쳐

네팔 및 아시아 등 산소 지원 구호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울산 정토마을 국경없는민들레가 긴급구호 모금에 나섰다. 울산 정토마을(이사장 능행) 국경없는민들레는 최근 네팔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산소 지원 구호요청에 따라 산소통 구입모금을 시작했다.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는 미얀마, 보드가야, 등 세계 오지를 중심으로 의료 봉사 및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매년 의료봉사팀이 오지를 탐방하고 직접 문진 및 치료에 집중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이후 의료구호 활동을 위한 방법을 모색, 아시아 7개국 내 빈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식량과 마스크 지원 등 긴급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국경없는민들레는 "코로나 감염에서의 산소 부족으로 현재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나눔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원품목은 산소 1통당 1만 5000원이며 산소발생기는 자율기부다. (052)255-858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두 다리는 잘렸지만
희망마저 잃을 수 없어요

스리랑카 출신 이주민 노민다씨 쓰레기 분쇄기 수리 중 두 다리 잘려
고액의 양쪽 의족 비용에 또 좌절… 통증과 사고 악몽에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2-725-701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고운사, 7월부터 '수행연금' 시행

6월 11일, 종무회의서 결의

고운사승려복지회 심의 거쳐
3급이상 재적승 44명 선정해
CMS 등 통해 기금 모연 진행

박영애 영주지국장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가 7월부터 교구 재적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의성 고운사는 6월 11일 교구종무회의를 열고 재적스님 중 각처에서 수행하거나 정진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수행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 내용에 따르면 수행연금 지급 대상자는 고운사 재적승 가운데 3급 이상 스님으로 고운사승려복지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말사주지와 중앙교역직종무원을 제외한 44명이 1차로 선정됐다. 고운사는 매달 10만원씩 해당 스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이번 고운사 수행연금의 특징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말사주지와 중앙교역직, 종무원을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소임을 살며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한 수행연금으로의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고운사 경내를 스님이 포행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고운사 측은 "보다 많은 스님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모금을 기다려 늦게 시행하기 보다는 기금 한도 내에서 빨리 시행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고운사 승려복지사업이 다른 교구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많은 스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문중의 어른 스님들께서 기금을 출연하시고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기금 조성에 뜻을 모아주셨다. 모두 감사드리며 수행자를 위한 복전인 고운사승려복지회 CMS 계좌 모연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고운사는 향후 초파일 등 행사시 수행연금 후원을 위한 CMS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등운 스님은 "명칭을 수행연금으로 한 것은 출가한 스님들의 일상생활이 수행이기 때문"이라며 "많은 대중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진하고 있지만 큰 스님들께서 밝히신 방향에 따라 수행풍토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운사는 2020년 12월 고운사승려복지회를 구성하고,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기금 조성에 들어간 바 있다. 고운사는 세부적인 제도 마련과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운사승려복지회는 고운사 신도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운사승려복지회 108통장 모연'과 함께 '고운사승려복지회 CMS 계좌'를 개설해 모금운동을 주도해 왔으며,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만복의소리 봉사단 밑반찬 나눔

홀몸어르신 식사문제 해결 도움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만복의 소리 봉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식소 이용에 제한을 받는 독거어르신을 위해 밑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6월 26일 쌍봉사 만복의소리 봉사단은 열무 · 얼갈이배추 국물김치, 꽈리고추멸치 조림, 코다리 무조림, 메추리알 조림, 백설기 등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어르신 가구 30가구에 전달했다.<사진>

이번 반찬나눔 봉사활동은 진안군 자원봉사협의회 사회공헌 기부은행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봉사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세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진행되며 완성된 밑반찬은 봉사자들이 직접 어르신 주택을 방문해 전달한다.

보경 스님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반찬을 만들어 준 봉사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지사장

김제 관음선원 플리마켓 오픈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 회향



김제 관음선원(주지 영전)이 군산 대야시장에 대야기차길 플리마켓의 문을 열었다.<사진>

6월 21일 전법과 포교의 일환으로 문을 연 '대야기차길 플리마켓'은 시장 포교를 하며 판매 수익 전체를 어려운 이웃과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오픈식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도홍 스님, 재무국장 현진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현담 스님이 참석했다. 또 노래하는 가수 무상 스님과 민경숙 시인, 색소폰, 하모니카 연주자 등이 출연하는 작은 음악회도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이 시대는 부루나 존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살필줄 아는 포교를 진행해야 한다. 이웃을 위해 헌신한 관음정사 영전 스님은 현 시대 어둠을 밝힌 포교 전법사"라며 "다종교 시대에 이웃을 살피는 일은 너와 내가 없어야 하며 포교의 도량이 무궁히 발전해야 한다. 이웃과 정을 나누는 대야기차길 플리마켓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지사장

전주교도소 교정협, 수용자 간식 전달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진성, 태고종 전북종무원장)는 무더위 속에서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전주교도소 수용자와 전주소년원 등 청소년 교화시설 청소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전달했다.<사진>

진성 스님과 불교위원장 현진 스님, 군산 광법사 명법 스님, 염불사 행담 스님, 도안사 명현 스님, 탑밴드 봉사단 등은 6월 25일 전주교도소 2800개, 전주소년원 500개, 자립생활관 200개, 엠마뉴엘 청소년쉼터 100개, 천사마을 청소년쉼터 100개 등 총 3700개의 아이스크림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아이스크림은 (사)장엄, 이화불교사, 전주 천지사, 군산 도안사, 군산 염불암, 군산 광법사에서 후원했다.

최병록 전주교도소장은 "필요한 때 늘 수용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기부해주신 진성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는 날 이렇게 후원물품을 전해주셔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지사장

"와 새 신발, 감사합니다"

완도 신흥사 · 자비신행회
초교 2곳에 새 신발 전달

한반도의 최남단 완도 섬 아이들에게 전해진 새 운동화 선물이 화제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와 자비신행회(대표 이화영)는 지난 6월 29일 완도중앙초등학교와 완도초등학교 학생 26명에게 후원자들이 마련한 새 신발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신흥사 주지 법공 스님은 "완도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인 신흥사가 모범이 되어 지역사회의 꿈나무들인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공공의 디딤돌을 놓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운동화 지원사업은 그동안 완도지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던 완도의 대표사찰 신흥사와 광주지역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온 자비신행회가 완도지역 아동들을 위해 공동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은 프로그램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전쟁 호국영령을 기리며"

호국불교조계종, 다부동 법전사
호국 영령 합동 위령대재 봉행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된 법전사 위령대재.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호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다부동 법전사(회주 혜륜)는 6월 24일 경내에서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합동위령대재를 봉행했다.

45회를 맞는 이번 합동위령대재는 제1부 의식집전에 이어 제2부 합동위령대법회로 봉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삼귀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개회선언, 법문, 추모사, 봉행사, 발원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법전사 회주 혜륜 스님은 "나라의 위태로움이 영웅을 만들고 위대한 영웅은 나라를 얻는다. 애국이 부처를 살린다면 먹물 옷도 갑옷이요 하늘 덮은 포탄인들 두려움이 있으랴"라며 "다부동 전투에서 혹은 월남전에서 목숨을 던진 애국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다"고 법어를 내렸다.

세계불교국제법황청 초대법황인 혜륜 스님은 45년간 위령대재를 성대하게 지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집전, 공양 올렸다.

진윤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숭고한 동기와 결과에 온 겨레가 영령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유훈을 받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복을 빌었다.

전주에서 참석한 민규식 유족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당시 순국하신 선열과 호국 전몰군경, 무명용사들의 유해를 모신 위령탑에서 매년 합동위령대재를 봉행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순 관음회장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풍토를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진만 스님은 "조국을 위하여 꽃다운 청춘을 불사른 영령들과 일체 고혼들이시여, 극락왕생하옵소서. 먼저 가신 영령들의 호국 대원을 받들어 이 국토에 평화번영을 성취하게 하소서"라며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어 세계불교이안종 종정 일선 법조(法照) 스님과 함께 사홍서원으로 위령재를 회향했다.

한편, 다부동 법전사는 해마다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하며 인근 다부동전적기념관과 더불어 호국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빙의지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30~7/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현실은 영원이다 : 지광스님의 삶과 죽음에 관한 법문	지광스님	위로	6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7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8	운허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 돌 모둠	운허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4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9	공과 윤리 : 반야 중관에 대한 오해와 이해	김성철	오타쿠
5	프리스틴 마인드 : 궁극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초월 명상 안내서	올갯 초왕 린포체	운주사	10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카르마 알면 인생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너무 늦기전에 들어야할 카르마 강의
최준식 지음
김영사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하루하루 풀리지 않는 미움과 갈등으로 불행하다면, 또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장애로 괴롭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의 슬픔에 빠졌다면, 인생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카르마에 그 해법이 있다. 삶과 죽음을 넘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인생서 풀어야 할 과제를 깨닫기 위해 꼭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카르마의 증거와 원리, 이유와 작동법, 전생과 내생의 비밀까지. 종교학자 최준식 교수의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인생 강의 3탄이다. 카르마를 알면 인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인생의 쳇바퀴를 탈출하는 최선의 방책은 카르마를 알고 해소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카르마를 아는 일입니다. 그러한 '앎'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하교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갑자기 덮친 자동차 사고로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 장애를 타고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 사람… 등등.

우리는 뉴스에서, 또 주변서 종종 원인모를 고통과 시련을 마주하곤 한다. 왜 누군가에게는 불운이 닥치고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따를까.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을까. 이 책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카르마 강의〉가 이 물음에 답한다.

저자 최준식 교수는 40년 넘게 한국인의 삶과 죽음, 문화를 연구한 한국학자이자 종교학자, 죽음학 권위자로, 한국죽음학회를 창설해 죽음학 불모지였던 국내서 죽음학 연구를 선도했다.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임종학 강의〉 등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죽음 공부를 전파하며 많은 독자와 소통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삶과 죽음을 넘어 진정한 나를 완성하는 법칙을 담은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카르마 강의〉를 펴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인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깨닫는 공부로 우리를 안내한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카르마(karma)'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카르마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카르마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책은 우리 인간이 지은 카르마와 그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카르마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르마 법칙은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속에 영합하면서 재물이나 지위를 성취하는 것으로 행복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진실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풀리지 않는 미움과 갈등으로 불행하다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장애로 괴롭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의 슬픔에 빠졌다면,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카르마에 그 해법이 있다. 카르마의 증거와 원리, 이유와 작동법, 전

행복과 성장 인도하는 카르마 법칙
삶과 죽음을 넘어 진정한 나를 완성
저자, "카르마법칙 항상 내 편"강조

생과 내생의 비밀까지. 문답을 주고받듯 편안하게 책장을 넘기다 보면 우리 주변을 도도하게 흐르는 카르마 법칙을 통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악행을 거듭하는 사람을 보면 흔히 "저 사람은 언젠가 업보를 받을 거야"라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업(業)은 미래에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카르마를 뜻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이 전부 업이다. 보(報)는 업에서 비롯된 결과(과보)이다. 그러므로 "과보를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옳다. 카르마가 원인이 되어 과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카르마 법칙의 요체다.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은 모두 과거에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다. 좋은 카르마를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카르마를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누군가를 탓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카르마 법칙이 징벌을 주는 법칙은 아니다. 당사자에게 그가 쌓은 수많은 카르마를 소멸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줄 뿐이다. 자신이 가지고 온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르마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나의 카르마를 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르마 법칙은 내가 쌓은 수많은 카르마를 소멸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좋지 않다고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카르마 법칙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향해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카르마 법칙은 항상 내 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떻든 카르마 법칙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 생의 과제를 알아내어 하루라도 빨리 카르마 법칙을 이해해야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카르마에 관한 궁금증

▲카르마 법칙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일상 의식으로 카르마 법칙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명상을 통해 의식을 평온하게 침잠시켜야 한다. 이러한 명상 전통을 크게 발달시킨 힌두교와 불교가 카르마 법칙을 설파하는 이유다. 현대에는 서양에서 카르마 법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면과 환생에 관한 연구와 수많은 임상 사례는 인간의 삶에 카르마 법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나를 둘러싼 인연 어떻게 이해할까

이전 생에 누군가와 카르마를 쌓았다면 그 카르마를 청산하기 위해 이번 생에 가까운 사이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 예컨대 자신이 괴롭히고 착취했던 사람을 현생의 부모로 만날 수 있다. 되갚음을 받아 교훈을 얻으라는 카르마 법칙의 안배다. 이때 양자의 카르마가 지속되어 내생에 다시 만나 증오의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모가 통찰력을 발휘해 전생의 원한을 용서하고 자식을 잘 돌본다면 둘 사이의 카르마는 이번 생에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 정해졌다면 현실 개선할 수 있을까

현생의 고통은 분명 전생에 잘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르마 법칙은 우리에게 환란에 빠진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옳은 길, 정도(正道)라고 가르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카르마 법칙은 결정론도, 숙명론도 아니다. 카르마 법칙은 '도덕적인' 인과론이다.

▲나만의 천직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직업도 전생과 관계가 있을까.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인간은 이전 생의 직업을 이번 생에도 택한다고 한다. 평생 해온 일에 관한 정보가 의식에 저장되어 다음 생으로 전달되므로 비슷한 직업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천직을 찾는 것은 카르마 해소뿐 아니라 삶의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어떤 의심도 들지 않는가?"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현재 직업이 천직인지 점검하고 인생 계획을 새로이 세워보길 권한다.

성철 스님 생애와 가르침 되살려낸 소설



소설 성철 1, 2권
백금남 지음/마음서재 펴냄/1만 5천원



10년 동구불출, 8년의 장좌불와
내마음 '깨침' 공부가 수행 핵심

〈소설 성철〉은 불교 소설의 대가로 알려진 백금남 작가〈사진〉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공들여 완성한 작품이다. 엄격한 유가에서 자란 성철 스님이 어떻게 불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스승인 동산 스님을 만나 어떻게 깨침의 길로 나아갔는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또한 속가의 어머니, 아내와 딸마저 출가해 스님이 된 비밀스러운 가족사도 함께 담겨 있어 그 깊이를 더한다. 이 소설을 읽으면 누구라도 성철이 일개 구도자가 아닌, 이 시대의 살아 있는 부처였음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백금남 작가는 칠십 평생 마지막 작품이라는 일념으로 이 소설을 썼다. 대개의 인물 소설은 객관적이고 정론화된 사실에 근거하지만 소설적 개연성을 얻기 위해 주관적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에 접근이 힘들다. 더구나 성철 스님의 수행 과정은 매우 치열하고 독특했기 때문에 일대기를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느냐는 매우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성철 스님의 수행 정신을 그만의 언어로 되살리는 데 집중했다.

그는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추적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비롯해 아내와 딸마저 출가한 애절한 가족사를 알고 난 뒤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당대에 수행자로 함께했던 만공 탄허 동산 스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선승의 살아 있는 선사상도 만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두 권에 걸쳐 방대한 소설을 쓰게 된 궁극적인 이유다. 엄격한 수행을 통해 얻은 전생 · 현생 · 내생의 삼생관들이 온전히 담겨 있어 오늘날 수행자는 물론, 불자들에게도 울림이 매우 클 것이다.

진리가 말이 되면 거짓이 되고, 그 거짓은 중생에게 진리가 된다. 거짓말쟁이 중생을 구하러 쇠산지옥으로 간 부처는 누가 구할 것인가. 삼세를 넘어 취모검을 들고 지옥으로 갈 이는 누가 될 것인가. 중생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이다. 지옥을 천상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깨달음은 어림도 없다. 말이 된 진리가 취모검에 베이지 않고는 모든 것이 한낱 수작에 불과하다. 아무리 부처의 세계를 설해도 중생은 모른다. 그렇다고 부처의 세계가 변했을 리 없다.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소설에서 성철 스님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희가 이 세상에 온 도리를 알겠느냐? 1 2 3 4 5 6 7 이여."

이처럼 성철 스님이 휘두른 지혜의 불칼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행자들에게 크고 깊다. 지금 그는 가고 없다. 그러나 그 수행 정신은 온전히 살아 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죄 많은 세상에서 취모검을 휘두르며 지옥까지 끌어안아 깨침의 세계로 가고자 했던 한 구도 수행자의 삶이다. 우리는 소설을 통해 비로소 알 수 있다. 성철 스님의 취모검이 번뇌와 인과를 끊는 단순한 칼이 아님을, 오로지 중생을 향했던 자비심의 칼임을 깊이 깨우치게 된다. 김주일 기자



화제의 신간
명당 찾는 비법
董善浩 著 / 488쪽 / 정가 30,000원

★풍수지리의 교과서 이자 지침서!
• 중국에서 전래된 고전적(古典的)인 풍수지리를 지양(止揚)한 과학적으로 정립된 현대적(現代的)인 풍수지리서의 교과서(教科書)이자 지침서(指針書)이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명당을 정확히 찾아 내는 비법!
• 산과 들 및 건물이 있는 현장(現場)에서 명당자리를 찾아 내는 비법(秘法)을 공개한다.
•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각종 지도(地圖)와 사진 등에 의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지구촌의 곳곳에 있는 모든 명당자리를 찾아 내는 비법(秘法)을 공개한다.
• 명당자리의 대소(大小)와 수맥(水脈) 여부(與否)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비법(秘法)을 공개한다.

★개천에서 용(龍)이나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명당 찾는 비법" 안에 있다!
• 명당 찾는 비법(秘法)에 의해 한 장소에서 최소 32개에서 최대 1,184개 이상의 대명당(大明堂) 자리를 찾아 활용(活用)한다면 대대손손(代代孫孫) 지구촌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人才)들이 반드시 배출된다.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송월스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6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6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김성진 지음 / 신국양장본 / 정가 45,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임시종정 선임 건 소송관련 사과문
– 사건 2021마5232 임시종정선임 –

귀의 삼보하옵고,

– 아래 발신인 배재식,이춘근이 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위 사건 소송이 진행되어 수신인(대한불교원효종 전 종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발신인은 수신인을 상대로 위 사건 관련 항고장에 항고인(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있었던 승려입니다.

– 발신인은 위 사건 관련하여 감로사(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상운(하영기)주지스님이 대구고등법원2020라388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항고인(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위임하거나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고장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경주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비합3003 임시종정선임 사건에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참가인으로 위조하여 제출하여 소송이 진행된 것을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알게 되었습니다.

– 발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으로 동의나 승낙을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보조참가인으로 위조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 위 하영기(상운)를 상대로 2021년 6월 22일 고성경찰서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감로사 주지스님은 임시종정선임자 추천 동의서 서명자 명단과 종도대회동의서 서명자명단도 위조하여 이 사건에 제출하였기 위 고소장을 제출 할 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발신인은 위 사건 보조참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대법원판결 후 알게 되어 대한불교원효종 전종도님과 임시종정님께 물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참회합니다. 나모불 ~

2021년 6월 26일

발 신 인 **이춘근** (법명 : 법신)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4길11(성불사)
배재식 (법명 : 보문) 마산시 회원구 석전북5길15번지(축지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임시종정 귀중

中스님, 자비로 동물들을 구하다

8000 마리 이상 유기동물 구조

중국 매년 5000만 마리 유기
1993년경 반려동물 구조시작
SNS활용해 해외입양도 전개

박영빈 객원기자


구조한 유기견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지샹 스님(좌). 사진출처=시나통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문제가 전세계적인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유기동물들을 구조해 재입양하는 자비행을 실천하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6월 24일, 국제 불교뉴스포털인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와 'AFP 통신' 등은 동물을 구조하는 지샹(智祥) 스님을 소개했다.

상하이 교외에 위치한 바오언쓰(報恩寺)의 주지 지샹(智祥) 스님은 지금까지 종류에 관계없이 상하이와 교외에서 유기된 동물들을 구조해 왔다. 현재 사찰과 스님이 세운 보호소엔 8000여 마리의 유기견과, 200여 마리의 유기묘, 거위와 공작새와 같은 조류들이 함께 있다.

중국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중국에서는 매년 약 50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매년 두 배씩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중국 중산층의 폭발적 증가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양 증가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와 인식 확대는 더뎌 무단으로 유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샹 스님은 "반려동물을 싫어하고 혐오하여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동물들을 돌보는 지식이 없는 소위 애호가들에 의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지샹 스님이 최초로 구조한 동물은 교통사고를 당한 고양이였다. 스님은 "정확히 언제부터 구조활동을 시작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1993년경으로 기억한다. 농가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동물들을 돌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구조를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현재 스님은 매주 2회 경찰서나 소방서서 구조한 유기견들을 보호소로 데려오고 있다. 스님이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소식에 스님이 있는 바이언쓰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스님은 "나라도 하지 않으면 이 생명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이라며 "힘들지만 한 마리라도 더 구해야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이 지금까지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돌보는 데 쓴 비용은 1200만 위안(한화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이 비용을 사찰 보시금과 도반스님들 및 속가 가족들에게 지원받아 해결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스님의 활동과 상황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자원봉사자들과 후원금들이 모이고 있다. 스님은 외국어에 능숙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SNS를 활용, 2019년부터 영미권으로 약 300여 마리의 유기견들에게 새 가족을 이어줬다.

스님은 "언젠가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해외로 입양 보낸 개들을 다시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고 꿈을 밝혔다.

스님은 동물구조에 대한 불교도의 자세를 묻는 질문에 "출가한 지 얼마 안됐을 때, 불교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고 불자는 어떤 실천행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단지 불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불교는 아니라는 생각을 확고히 했다"며 "많은 불자들이 생명보호와 사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혼란의 미얀마 승가, 비판 직면

군부 회유에 일부 스님 지지, 6월 27일 외신 연이어 보도

민주열사 시타구 스님 전향
불교민족주의 등 깊게 연결
대다수 승단은 민주화 지지


최근 공개적인 군부 지지 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시타구 사야도 스님. 사진출처=포린 폴리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시작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미얀마 스님들이 군부를 옹호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화 운동에 함께했던 스님도 군부 지지에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6월 27일 미국 평론지 '포린 폴리시'를 비롯한 외신들이 미얀마 승가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분석을 보도했다.

국민 90% 이상이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스님들의 민주화 운동 참여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2007년 스님들의 주도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은 가사 색을 딴 '샤프론 혁명'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이번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에서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민주정부 수립 후 극단적인 불교민족주의가 불교계 내에 강해지며, 군부를 지지하는 세력도 승단 내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킨 마르키 연구원은 "불교가 혜택을 받아왔던 군부시대의 향수, 젊은 세대의 불교에 대한 관심 약화, 소수민족의 부각 등으로 일부 불교계 인사들이 가진 민주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이 함께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정부 지도하에 불교계 대학들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종교부 예산이 감축 추진된 것도 승단의 불만과 군부에 대한 지지까지 이어지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와 양곤 등지에서 스님들 주도하에 정부 규탄 시위도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민주정부를 지지하고 있지만 승단 고위직 스님들이 친군부 성향이 있어 승단의 민주화 시위 참여를 금지시키고, 참여한 스님들을 사원에서 내쫓는 등 보복을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2007년 샤프론 혁명 당시 민주진영을 이끌던 스님들을 군부가 감금하며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군부를 지지하는 스님도 나와 비판을 받고 있다. 미얀마에서 사회참여로 존경을 받으며 영향력을 발휘해 온 시타구 사야도 스님으로, 이 스님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군부의 정당성 지적뿐만 아니라 군부가 불교도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가해 미국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반이슬람 시위를 주도하고 불교민족주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위라투 스님도 군부 쿠데타 직후 군부에 의해 석방되어 미얀마 시민사회의 미얀마 승가에 대한 실망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일, 총선결과에 불복한 군부의 쿠데타로 촉발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현재 내전 양상으로 번진 상태다. 지금까지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군부는 민주진영을 불법 폭력시위대로 규정하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여행의 향수를 느끼다

美, 태국사원 '일요 타이 푸드마켓' 인기


일요 타이 푸드마켓에서 구매한 태국음료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출처=더 달라스 모닝 뉴스

6월 28일 '더 달라스 모닝 뉴스'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태국 불교사원에서 주최하는 일요 타이 푸드마켓 재개 소식을 전했다.

미국 텍사스주 노스 댈러스의 포레스트 레인 외곽에 있는 태국 불교 사원은 지난 15년간 포교 및 운영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일요 타이 푸드마켓을 운영했다. 사원 내 주차장에서 태국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여 태국 음식을 경험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1년 가까이 잠정적 휴업을 선언했던 이 사원은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6월 초, 일요 타이 푸드마켓 운영을 재개했다.

태국 불교사원 켄 테포테 박사는 "사원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전통 태국음식이다. 쏨땀(파파야 샐러드)을 예로 들면 미국에서 파는 쏨땀은 미국인의 입맛에 맞춰 레시피를 바꾸기 때문에 매우 달콤하다. 그러나 우리 사원에서 판매하는 쏨땀은 태국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를 그대로 사용해 진정한 태국의 맛을 고수한다"며 "일요 타이 푸드마켓에서 판매하는 태국 음식을 상품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노점 형태를 지속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일요 타이 푸드마켓은 입소문을 통해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여행에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근거리 여행으로 태국 사원을 택했다. 태국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밀려드는 손님으로 몇몇 노점은 일찍 문을 닫았다.

자원봉사자는 "태국인으로서 우리의 문화와 유산을 나누는 것이 즐겁다. 우리 시장이 입소문을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며 "이곳에 방문하면 태국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특히 사찰에서의 여름이 태국 여름과 같다"고 전했다.

일요 타이푸드 마켓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인기있는 음식은 빠르게 품절되기 때문에 오전 중 방문을 권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와 저항 노래하는 티베트 래퍼



티베트 힙합계를 이끄는 MC 텐진 사진출처=AFP

티베트인 래퍼가 노래를 통해 불교와 저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6월 28일 싱가포르 신문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중국에 저항하는 래퍼 MC 텐진을 소개했다.

티베트에서 랩이라는 음악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장르다. 티베트 랩의 대부 'MC 텐진'은 에베레스트 산기슭 오지에서 태어났으나, 학창시절 에미넴과 50센트의 미국 힙합을 접하고 래퍼의 길을 걷게 되었다.

사회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중심 소재로 잡는 랩이라는 장르는 끊임없는 중국정부의 불교 · 인권탄압에 저항하기에 좋은 소재였다.

MC텐진은 전통적인 불교음악을 바탕으로 한 비트에 티베트어로 중국의 탄압 반대를 가사에 담았다. 또한 잊혀가는 티베트의 전통을 노래하며 티베트의 문화적 자부심과 불교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티베트 랩을 영어로 번역해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티베트인 데첸 펜바는 "티베트의 예술가들은 현지의 정치적인 상황상 분명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다른 장르의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청중에게 메세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티베트어, 영어, 중국어, 네팔어 등의 4개 국어를 혼합하여 랩을 하는 MC 텐진은 자신의 음악을 공유하고 팬들과 교류하기 위해 라이브 쇼와 함께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주로 사용한다. 티베트 팬들은 "MC 텐진의 랩은 전통적인 불교 음악을 바탕으로해 티베트 인들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랩의 리듬과 잘 어울린다"며 호평을 보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 마이크가 일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매우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므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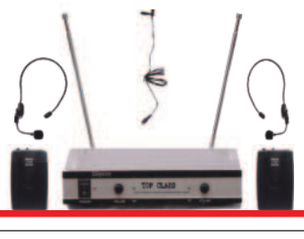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슷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5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58만원

사라진 절터서 보는 천년 신라

국립경주박물관 특별 사진전

'천년 묵은 옛터에 풀은~새롭네'
특별전시관 6월 30일~10월 3일

사진가 한석홍, 안장헌, 오세윤의
경주지역 불교유적 사진 57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오세윤 作, 경주 망덕사지(2019)

신라의 사찰을 사진으로 만나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6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사진전 '천년 묵은 옛터에 풀은 여전히 새롭네' 를 개최한다.

올해 말 신라미술관 개편에 앞서 대중에게 신라 불교미술을 널리 알리고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특별전은 오랫동안 문화재 사진을 찍어온 사진가 한석홍, 안장헌, 오세윤이 수십 년에 걸쳐 찍은 사진 가운데 경주 지역의 불교 유적을 담은 57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신라 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신라 불교미술의 가치와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특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전의 제목은 오늘의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신라의 세월을 그리워했던 조선시대 문신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남긴 문장에서 비롯됐다. 서거정은 쇠락한 경주 분황사를 보며 "황룡사와 마주하여 서 있는 분황사 천년 묵은 옛터에 풀은 여전히 새롭네(芬皇寺對黃龍寺千載遺基草自新)"라고 했다. 서거정이 분황사 터를 바라보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신라 시대 사찰은 대부분 건물터만 남아 세월의 무상함을 전해주는데, 여전히 푸르른 자연과 함께 만들어내는 그 풍경은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주춧돌만 남아 있는 옛 터의 사진은 단순히 오늘에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사진 속의 '남아 있는 것' 은 남아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지금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라져간 옛날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전히 새로운 옛 터의 풀들과 더불어 햇살, 바람 그리고 구름과 함께 천년 묵은 옛터를 보여준다. 그렇게 순간의 셔터가 만들어낸 사진 속에는 '오늘' 과 사라진 '천년' 이 함께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문화재 사진' 은 단순히 문화재의 '있음' 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눈으로 바라본 시대적 '미학' 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했다.

△1부는 신라 왕경에 세워진 사찰의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신라는 6세기부터 황룡사, 분황사와 같은 대규모 사찰이 왕경 중심부에 조성됐고, 676년 통일 이후에는 낭산 주변으로 사천왕사, 황복사, 동해안 쪽으로 감은사, 불국사 등이 조성됐다. "절들은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 떼처럼 줄지어 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당시 신라 왕경에는 수많은 사찰들이 들어서 있었다. 지금은 사찰 건물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주춧돌, 탑 또는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 옛 절터는 전시된 사진이 보여주듯이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2부의 주제는 야외 불교박물관으로 불리는 '남산' 이다. 경주 남산에는 여러 계곡에 걸쳐 100여 구의 불상과 수십 기의 탑이 남아 있다. 전시된 사진은 천 년 전 신라 사람들이 자연 속에 구현한 불교적 이상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역시 사진은 오늘의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리게 한다. 마애불과 석탑의 그림자 끝에 있었을 불사의 흔적을 오늘의 풍경과 함께 보여준다. 햇빛에 마애불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어둠속에서 서 있어야 했던 작가의 시간을 느껴보는 것도 또 하나의 감상법이다.

△3부는 신라의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석굴암 사진을 소개한다. 석굴암 건축과 조각의 탁월한 조형미가 흑백사진으로 한 층 웅장하고 무게 있게 다가온다.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된 개별 조각은 각각 부처, 보살, 사천왕상, 승려를 직접 대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의하면 석굴암은 신라인이 남긴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이자 대작불사라고 할 수 있다. 비단 미학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대한 불사를 이룩할 수 있었던 신라인의 혼이 담겨 있는 것이다. 신라인의 신앙의 소산이며, 위정자와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인 것이다. 한 장의 사진은 남아 있는 유적의 흔적으로 볼 수 없는 천 년의 위대함을 전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다양한 신라의 문화유산을 보다 흥미롭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특별전이 경주시민과 경주를 찾는 모든 대중에게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내 입장은 시간당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시관 내 입장은 시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054)740-7614

BTN불교TV 여름개편 단행

'마음을 바꾸는 시간 ~ ' 등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제
신행활동 활성 프로그램 편성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7월 5일부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행문화' 라는 주제로 시청자들과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신규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시간을 변경하는 여름개편을 단행한다. 특히 이번 개편은 불자 · 시청자들의 '기초 신행생활을 돕기 위해 365일 함께할 수 있는 염불독경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고, ASMR, 온택트 대중강연 등 트랜드에 맞춘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신규프로그램으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들은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Go! Inside)' 와 '멈춤 그리고 쉼' , '생활 속 염불수행' 이다.

7월 7일 첫 방송되는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Go! Inside)' 는 매주 수요일(오후 11시 15분) · 금요일(오후 8시 30분) · 토요일(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된다.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감정의 문제를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가 놓인 상황, 내면의 갈등, 자연과 사회, 마음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비대면 온라인 강연 프로그램이다.

7월 5일 첫 방송되는 '멈춤 그리고 쉼' 은 매주 월 · 화 · 목 · 금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된다. 눈과 귀가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오감만족 콘텐츠로, 자연과 불교의 유 · 무형 유산 등의 소재를 중심으로 해 아름다운 영상과 소리로 구성한 ASMR 프로그램이다.

그 밖의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속 염불수행' , '붓다의 길, 입보리행론' , '혜능스님의 화쟁사상으로 보는 세상' , '전현수 박사가 풀어주는 초기불교'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아기 안은 현대적 수월관음도


어화둥둥아가야, 160×98.5센티, 비단에 석채, 2021.

조이락 '대자대비-어화둥둥~' 展
갤러리한옥 6월 30일~7월 9일
고려불화 재현 · 현대작품 20여점

전통 고려불화 재현작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려불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교려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조이락 작가는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 갤러리 한옥에서 개인전 '대자대비-어화둥둥 아가야'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 경신사(카카미진자)가 소장하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모본으로 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저출산과 아동학대 등의 아이 수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관음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 '어화둥둥 아가야!' , 일본 잠수사(센쇼지) 소장의 양류관음도를 시원한 석청으로 표현한 '푸른 광배의 수월관음도' 와 처녀작인 2003년도 작품 지장보살도 등 고려불화 재현작품과 소품 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 작가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중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붓을 들었으며, 문득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과 만날 때, 마치 자신이 아기가 된 듯 한없이 어리광을 부리며 관음의 품에서 위로 받고 싶은 심정을 아기로 대신해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조이락 작가는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고려불화와 유물재현을 공부했으며 모사와 보존과학 부문 문화재수리 기능자이다. 조 작가는 서양화가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본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에 매료돼 20여 년 동안 불화를 그리고 있다. 8번의 개인전과 30여 회의 초대전 및 유물모사 작업에 동참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청, 대구 부인사 등에서 조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의 연마로 석채와 금니의 사용뿐 아니라 표현하기 어렵다는 공간의 깊이감을 잘 나타내며, 부처님의 상호는 자애롭고 명상적이다. 재현작품은 마치 700년 전의 유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수월관음도와 만오천불도, 아미타여래도 등이 있다. 수월관음도의 재현과 만오천불도는 2015년 미국 LA 프록시 플레이스갤러리 초대전, 2017년(뉴욕 플러싱 타운홀), 2019년(뉴욕 티벳하우스) 뉴욕 한국문화재재단에서의 초대전과 시연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고려불화 재현작과 드로잉으로 2020년 '숨은 꽃-님에게 가는 길' (아트로직 스페이스. 서울), 2021년 '꽃으로 핀 바라밀' (마하보디 선원. 경주)이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가졌다. (02)3673-3426.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서원터서 나온 고려불교 의식구 보물된다

문화재청 7월 1일 지정예고
도봉서원 발굴조사 중 발견
고려시대 영국사 터로 확인
韓 밀교의식 연구 중요자료
'예념미타도량참법'도 보물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원 발굴 결과 원래 고려시대 절터임이 확인됐던 서울 영국사지의 출토 유물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고려 시대 금속공예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을 비롯해 조선 초기 음식조리서인 〈수운잡방〉, 불교 경전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보물로 예고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조선시대 유학자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도봉서원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 아래에서 지난 2012년 수습됐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조광조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하던 중 출토된 것으로 이를 통해 도봉서원이 고려 시대 영국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지정 예고 대상은 금동금강저 1점, 금동금강령 1점, 청동현향로 1점, 청동향합 1점, 청동숟가락 3점, 청동굽다리 그릇 1점, 청동유개호 1점, 청동동이 1점 등 총 10점이다.

원래 조선 시대 도봉서원 터라고 알려진 이곳은 2017년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초기 고승 혜거국사(慧炬國師) 홍소(弘炤, 899~974)의 비석 파편이 발견됐고, 비문의 내용 중 '도봉산 영국사'(道峯山 寧國寺)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따라 이 지역이 고려시대 사찰 '영국사' 터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출토된 의식공양구들은 고려 시대 영국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물의 용도나 의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특히 의식구인 금동금강저와 금동금강령은 주조기술이 정교하고 세부 조형도 탁월해 현존하는 고려 시대 금강저와 금강령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 금강령의 부속품인 물고기 모양의 탁설(鐸舌, 흔들면 소리가 나도록 방울 속에 둔 단단한 물건)은 국내 유일의 사례이기도 하며, 몸체 상단의 오대명왕과 하단의 범천 등 11존상의 배치도 희귀한 사례로 한국 밀교의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중 금동금강령 세부 모습. 오대명왕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고려 밀교의식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문화재청은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된 수준 높은 금속공예기법과 더불어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다양한 금속기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공예사와 불교사상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부산 고불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은 1474년(성종 5년)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이번 지정 예고된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태가 되는 자료로서 조선 전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 자료다.

또한, 인수대비와 인혜대비를 비롯해 공주, 숙의, 상궁 등 여인들과 월산대군 · 제안대군 등 왕실 인사들, 신미(信眉) · 학열(學悅) · 학조(學祖) 등 당대 중요 고승들이 참여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돼 조선 초기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불경 간행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가치가 크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불교 · 경영 · 미디어 융합학 배우고 싶다면…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

7월 13일까지 석 · 박사 과정
주 · 야간 강좌로 편의성 높여
조계종 스님, 65% 학비 감면

불교학과 경영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융합 전공하는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신설, 첫 특별전형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일반대학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학과장 김종욱)는 "7월 1일부터 13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전형은 학과장의 인터뷰와 추천서로 입학하는 과정이다.

올해 처음 신설된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불교와 사회의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위 과정이다. 교과들도 불교교단에 필요한 사업 능력 제고와 일반사회가 요청하는 인간 중심의 기업경영철학을 아우를 수 있도록 특화됐다.

공통 토대 교과를 바탕으로 불교학 전문 교과, 경영학 전문 교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문 교과로 학제적 시스템을 구축했고, 불교학의 인간불교 사상, 경영학의 조직 · 재무 · 인사관리 능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 화쟁적 소통이 융화된 교과목을 배치했다.

교수진으로는 불교학 관련 신성현 · 허남결 · 이자랑 · 조기룡 교수가, 경영학 관련 김승용 · 정구혁 교수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관련 김관규 · 김용환 교수가 참여한다.

일반전형 면접은 기대 이상의 응시로 지난 6월 5일 마쳤으며, 현재는 특별전형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과 관계자는 "불교와 경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융합한 학과가 얼마나 호응을 얻고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우였음이 일반전형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전문적 사찰경영이라는 학문적 수요와 실질적 학문에 대한 갈증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석사 · 박사 ·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편입학도 가능하다. 직장인들을 위해 주간 강좌와 함께 야간 강좌를 개설했으며, 조계종 스님(구족계 수지자)는 수업료 65%가 감면되는 건학이념 구현장학 혜택도 제공된다.

특별전형은 학과장 인터뷰 및 추천서를 발급받아 원서 접수와 서류 접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7월 23일이다. 인터넷 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로 할 수 있고, 학과장 추천서와 소정의 기본서류를 갖추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면 된다.

학과 신설을 추진한 불교학술원장 불영 자광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정법에 따라 경영하고 소통하며 열심히 재산을 모으되 절대로 그것에 집착하지는 말라고 하셨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계 변화와 중생 제도에 환원할 것을 당부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현대불교의 경영지도자, 현대경영의 불교지도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국 학과장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은 불교 사상과 현대 경영기법을 통섭해 불교교단과 사회조직에 적합한 경영 원리와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며 "수학한 졸업생들은 불교교단의 경영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교단의 조직, 신도, 삼보정재를 관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02)6713-5139 신성민 기자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 만나볼까

문화재청, 제4회 백제문화유산주간

공주, 부여, 익산 등에 널리 분포된 백제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 지자체(공주, 부여, 익산),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고도문화재단 등 10개 기관과 협력해 오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주, 부여, 익산 등 백제왕도에서 제4회 '백제문화유산주간'을 개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역사유적지구(8개소)가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시작됐으며, 매년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열리고 있다.

올해 주요 행사는 △부소산성 · 왕궁리 유적 등 발굴현장 공개 · 설명회 △내 손으로 만드는 미륵사지 석탑 등 체험 · 학습행사 △백제왕궁 달빛공연 등 공연과 음악회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야외사진전시회 등 사진 · 그림 전시회 △유물 · 유적 연계프로그램(백제문화유산 녹턴) △비대면 온라인 강연 · 홍보행사 등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성철사상硏 '퇴옹학보' 18집 발간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사상연구원(원장 조병활)의 학술지 〈퇴옹학보〉 18집〈사진〉이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지난 4월 24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퇴옹성철 스님의 불교관2'를 주제로 열린 학술연찬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수록됐다.

주요논문은 △성철선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시론(강경구, 동의대) △승조와 성철의 중도사상 비교(양순애, 경북대) △현수법장의 교판론과 퇴옹성철의 불교 비교연구(석길암, 동국대 경주) △퇴옹성철의 중도법문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 △선종의 수행과 신심의 상관성 고찰(김호귀, 동국대) 등이다.



부록은 제점숙 동서대 교수가 번역한 〈조선개교50년지〉가 실렸다. 〈조선개교50년지〉는 일본 정토진종 대곡파본원사의 한반도 포교 역사를 담아낸 것으로 구한말 종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신성민 기자

힐링하는
자비의 한 걸음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특수극세사원단을 사용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관절과 무릎을 보호하고
피로도 감소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보행을 약속합니다.
에르코스의 최첨단 기술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er ercohs 에르코스 포행화

무료주문전화 080-848-7777
불교신문 기획사업부 02-730-4489(단체주문)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5



▶ 26회 예고
아쇼까는 우빠굽따에게 마간디야 왕비의 악행 이야기를 듣는다. 마간디야가 첫째 왕비 사마왓띠를 괴롭히지만 그녀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애롭게 대처한다. 꼽추시녀 꾸줏따라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곤 했던 것이다.

아쇼까, 달밤에 우빠굽따 찾아가다

석양은 지평선에서 느릿느릿 움직였다. 지평선에서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가라앉고 있었다. 저녁 특식을 배불리 먹은 군사들이 야무나강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 뒤, 군사들은 시원한 강바람에 젖은 옷과 몸을 말렸다. 모래밭은 아직도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언덕에 있는 고시따라마 사원도 강바람이 올라왔다. 반얀나무 이파리들이 물총새처럼 팔랑팔랑 날갯짓을 했다. 아쇼까는 따뜻한 벽돌에 앉아 있다가 전령을 불렀다.

"전령, 선봉대장은 어디 있는가?"

"강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이제 점호할 시간이네."

군사는 적이 없다고 방심하면 안 되었다. 엄한 군기는 항상 유지해야 했다. 군기가 풀리면 군율이 흐트러지게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군사들을 너무 옥죄어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경계해야 했다. 석양이 지고 나자 땅거미가 스멀스멀 몰려왔다. 마치 날벌레 떼처럼 산지사방에서 날아오는 듯했다. 그래도 서쪽하늘은 피딱지 같은 검붉은 노을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선봉대장이 아쇼까에게 달려왔다.

"부왕이시여, 부르셨습니까?"

"군사들은 아직 작전 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러니 점호를 끝낸 뒤 고시따라마 사원 안에서만 대기하게 하시오."

"불볕더위에 지친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 강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만."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 그럴 수는 있소. 그러나 진압군을 모두 데리고 나가는 것은 군기를 해이하게 하는 일이오. 그러니 앞으로는 조를 짜서 움직이도록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선봉대장은 아쇼까의 지적을 즉시 받아들였다. 야무나강으로 나가 있는 진압군 군사들을 모두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불러들였다. 군사들은 부대별로 야영에 들어갔다. 고시따라마 사원은 진압군의 숙영지로서 충분했다. 그만큼 넓고 승방 건물들은 허물어졌지만 야영하는 데 불편하지는 않았다. 아쇼까는 전령만 데리고 고시따라마 사원 안을 순시했다.

마침 보름달이 떠올라 경계를 서는 군사들의 얼굴이 환히 비쳤다. 저녁특식을 먹고 강물에 목욕까지 한 경계군사들의 사기는 한껏 올라 있었다.

"그대는 어디 소속인가?"

"기마부대입니다."

"고향은 어디인가?"

"베살리입니다."

"한때 나를 가르쳤던 사문이 계신 곳이지."

아쇼까는 경계군사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격려했다. 어린 아쇼까를 가르쳤던 스님은 목갈리뿟따띳사였다. 빈두사라가 아쇼까에게 다양한 종교와 가치를 접하게 하려고 초빙했지만 아쇼까와 인연이 다해 베살리로 떠나버린 스님이었다. 목갈리뿟따띳사가 어린 아쇼까에게 자비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실망한 채 자신의 수행처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다.

"이제 군막으로 가시죠."

"빠딸리뿌뜨라에도 보름달이 떠 있겠군."

"대왕님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네."

"저는 가족이 생각납니다."

"나도 가끔 그렇지. 그런데 오늘밤은 나를 가르쳤던 사문이 생각나네. 보름달 때문인가?"

"부왕님께서도 잊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달처럼 자애로운 분이셨지."

"부왕이시여, 어떤 분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전령은 아쇼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에는 말을 붙이지 못했지만 달을 바라보는 아쇼까에게서 부드러운 내면을 느꼈던 것이다. 전령의 짐작대로 아쇼까는 약간은 감상적으로 말했다.

"자애로운 한 사문이 계셨지. 어린 시절 내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애벌레를 죽이자 살생하지 말라고 타일렀어. 어린 새들을 쫓는 큰 까마귀에게 새총을 쏘려고 할 때도 살생하지 말라고 막았지. 나는 사문의 말을 듣지 않았어. 나뭇잎을 살리려고 애벌레를 죽였고, 작은 새들을 지키려고 새총으로 큰 까마귀를 쫓아버렸거든."

"사문은 어찌 됐습니까?"

"나에게 실망하고 떠났어. 어머니께서 나를 더 맡아달라고 하셨는데도 베살리로 가버렸지."

"보름달을 보시면서 사문을 생각하셨군요."

"아까 낮에 보았던 사문도 생각나는군. 두 사문이 어딘가 닮았어."

"꿈속에서 부왕님을 보았다는 그 사문 말씀이군요."

"걸음걸이나 언행이 비슷해."

아쇼까는 군막으로 가지 않고 순시를 더 돌았다. 그때였다. 반대쪽에서 선봉대장이 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순시를 반대방향으로 돌고 있었던 것이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을 보자마자 무엇이 생각난 듯 전령에게 말 두 필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성 밖에 있다는 꾸꾸따라마 사원으로 가보세."

"낮에 보았던 사문이 머물고 있는 사원 말입니까?"

"잊지 않고 있군. 우빠굽따 사문을 만나고 싶네."

"제가 앞서겠습니다."

선봉대장은 꾸꾸따라마 사원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아쇼까의 지시대로 낮에 우빠굽따를 말에 태우고 다녀왔기 때문이었다. 꼬삼비성 밖 들판은 달빛이 가랑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먼 곳의 푸르스름한 망고동산까지 시야에 들어왔다. 들판의 가장자리인 언덕 아래로는 야무나강이 흘렀다. 강 상류 쪽에서는 휘황한 횃불이 타올랐다. 어부들이 켠 횃불은 고기들을 유인했다. 고기들은 횃불을 보고 몰려들었던 것이다.



우빠굽따는 샤나까바시의 제자였다. 샤나까바시는 붓다의 제자인 아난다를 신봉하는 수행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우빠굽따도 붓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봉했던 아난다의 언행을 흠모했다. 우빠굽따의 소원이 있다면 아난다가 붓다를 모시고 다녔던 곳을 모두 순례하는 것이었다.

"부왕이시여, 이곳이 꾸꾸따라마 사원입니다."

"이 사원에 우빠굽따 사문이 있다는 말인가?"

꾸꾸따라마 사원도 고시따라마 사원처럼 폐허나 다름없었다. 지붕 없는 승방들이 달빛에 드러나 있었고 원숭이들이 무너진 승방과 긴 회랑에서 어슬렁거렸다. 반얀나무 둥치에 수행자 몇 사람이 들짐승처럼 외롭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반얀나무 이파리들이 달빛에 칼날같이 반짝거렸다. 선봉대장이 말을 타고 다가서자 수행자들이 피하듯 물러났다. 우빠굽따만이 가부좌를 튼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낮에 선봉대장의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사문이여, 부왕님이 오셨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문을 뵈려고 오신 것이오."

그제야 우빠굽따가 일어나 십여 걸음 떨어져 있던 아쇼까에게 갔다. 아쇼까는 말에서 내려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아쇼까의 머리는 달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났다. 아쇼까 옆에는 거대한 벽돌탑의 사각기단만 남아 있었다.

"부왕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사문이 어떤 곳에 머물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소."

"보시다시피 이곳은 폐허나 다름없는 사원입니다. 몇몇 수행자들과 원숭이들만 살고 있습니다."

"고시따라마 사원과 비슷하군요."

"부왕이시여, 거기 앉으시지요."

"사문이 내 옆에 앉는다면 나도 앉겠소."

"옆에 앉는 것을 허락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보름달을 등지고 앉았다. 선봉대장은 경계를 서듯 두 마리의 말고삐를 잡고 십여 걸음 물러서 주변을 살폈다. 아쇼까가 물었다.

"왜 이곳에 머물고 있소?"

"꼬삼비는 부처님께서 두 해를 사셨던 성지입니다. 그래서 와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와 있다는 것이오?"

"부처님을 한없이 존경했던 아난다 존자를 닮고 싶어서 찾아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꼬삼비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부처님과 아난다 존자께서 계셨던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아쇼까는 존경심 때문에 붓다와 아난다가 머물렀던 곳을 순례한다는 우빠굽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수행자를 존경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고 의심했다. 아쇼까가 궁금한 것은 왕들의 통치능력이었다.

"꼬삼비 왕들 중에 뛰어난 사람은 누구였소?"

"코끼리를 잘 탄 우데나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웃자인 왕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지만 공주를 꾀어내어 탈출했던 지략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우데나왕의 왕비도 뛰어났겠지요?"

"사마왓띠 왕비와 마간디야 왕비가 있었지요. 그런데 모두 훌륭한 왕비는 아니었습니다. 마간디야가 사마왓띠를 질투해서 왕비와 5백 명의 시녀를 불태워 죽였으니까요."

"그러고도 무사했단 말이오?"

"과보를 받아 마간디야 왕비 역시 불에 타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아쇼까는 자신도 모르게 우빠굽따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어 갔다. 우빠굽따의 언변은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그가 어느 성을 가든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만큼 그는 붓다의 말씀을 줄줄 외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었다. 아쇼까는 사마왓띠가 궁금해 참을 수 없었다. 빠딸리뿌뜨라에 있는 두 번째 부인 아상가밋따와 꾸날라를 낳은 뒤 죽은 첫째부인 빠드마바띠가 떠올라 더 알고 싶었다.

"사마왓띠 왕비 얘기를 듣고 싶소."

"고아로 불행했지만 나중에는 왕비가 된 인물이지요."

보름달은 어느 새 중천에서 달빛을 뿌렸다. 아쇼까와 우빠굽따의 정수리에 내려쌓인 달빛이 일렁였다. 우빠굽따는 사마왓띠 왕비 이야기를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실타래를 풀듯 시작했다.

"사마왓띠 왕비는 원래 브라흐민 대부호 밧다왓띠야의 외동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밧다와띠야가 사는 도시에 전염병이 돌았다. 처음에는 벌레와 가축들이 죽더니 나중에는 사람들까지 숨을 거두었다. 도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산 사람들은 집과 가재도구를 버리고 가능한 한 멀리 피난을 떠났다. 밧다와띠야는 아내와 사마왓띠를 데리고 왐사국 수도 꼬삼비까지 왔다. 마침 꼬삼비에서는 굶주린 피난민들을 위해 구휼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밧다와띠야가 꼬삼비까지 온 이유는 왐사국 재정관인 고사카가 친구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밧다와띠야는 친구 고사카에게 바로 갈 수는 없었다. 가족 모두 행색이 거지꼴이었고 며칠 동안 굶주려 바로 쓰러질 것만 같아서였다. 밧다와띠야 가족은 먼저 구휼소를 물어 물어서 찾아갔다. 구휼소 앞에는 피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마왓띠는 창피하다고 차마 줄을 서지 못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음식을 탔다. 그녀는 배급받은 음식을 부모에게 갖다드렸다. 그러나 아버지 밧다와띠야는 허겁지겁 먹다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날 급사했다. 무슨 변인지 다음날은 어머니도 음식을 먹고 난 뒤 세상을 떠났다. 너무 허기진 데다 남편을 잃은 공포가 겹치어서였다. 사마왓띠는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다. 셋째 날이었다. 사마왓띠가 1인분만 음식을 달라고 하자, 급식을 담당하는 관리 밋따가 의아해했다. 날마다 3인분에서 2인분, 2인분에서 1인분으로 음식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급식이 끝난 뒤, 밋따는 사마왓띠를 따로 불러 음식의 양이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 사마왓띠 사연을 다 듣고 난 밋따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⑬ 간화선의 출현과 전개



▶ **한줄 요약**
선종사에서는 공안선과 문자선과 간화선의 순서로 형상되어 왔는데, 이들 선수행의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선종 대표적 화두 무자화두 탄생

1. 공안의 출현

공안선(公案禪)은 공안에 대하여 기록하고 사유하며 참구하고 전승하는 것으로써 선수행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안(公案)은 경론 내지 선어록 등에서 발췌한 일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단의 내용을 일컫는다. 이 경우에 공안은 납자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식과 납자 사이에서 문답의 주제로 활용하거나 가르침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유행되어 오면서 보편적인 의미가 확보된 경우에 해당한다. 곧 불조가 개시해준 불법의 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까닭에 납자가 분별식정(分別識情)을 버리고 참구하여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공안은 일정한 시대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 초시대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런 만큼 공안은 사사롭게 정의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부여된 법칙과 같은 기능을 담보하고 있는 일정한 내용의 글 내지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문의 법어 내지 문답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안은 공공문서로서 공부(公府)의 안독(案牘)에 비유되어 법칙의 조항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유행되어 왔다.

그 모습은 당대(唐代)에 시작되어 송대(宋代)에 크게 성행하였는데, 선문헌으로 〈운문광록〉에서는 현성공안(現成公案)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이 경우 현성공안은 공안이 안전에 드러나 있다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공안은 납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의식의 수단에 해당하는 화두의 측면과 더불어 깨달음 자체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유행되었다.

2. 간화선의 출현

송대에는 당 시대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수많은 공안을 중심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며 일종의 수행방법으로까지 활용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공안의 기능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공안을 채택하여 그것으로써 그 의미를 확인하고 체험하며 타인에게 가르침의 수단 내지 불조의 가르침을 파악하는 기관(機關)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공안 본래의 기능이 점차 보편적인 수행법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 가운데 공안선(公案禪)이라는 의미는 공안을 가지고 염롱(拈弄)하고, 공안에 의미를 부여하며, 공안 그 자체를 불조의 교화방편으로 이해하여 납자가 수행의 근거로 사용하는 수행가풍을 말한다. 따라서 공안선은 반드시 고래로부터 전승해 온 공안에 근거하여 그것을 수행방식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안의 선수행이고 공안에 대한 선수행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점차 보편성이 확보되면서 그 공안에 대하여 각 어절마다 또는 구절마다 짤막한 주석을 붙이기도 하고,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붙이기도 하며, 전제적인 대의를 제시하기도 하고, 공안이 내용을 독립적인 게송으로 표현하는 등 기타 유행을 창출해내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짤막한 주석은 착어(著語)라고 말하고, 자세한 설명은 평창(評唱)이라고 말하며, 전체적인 대의를 제시한 것을 수시(垂示)라고 말하고, 공안에 붙이는 게송을 송(頌)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불조가 개시한 공안을 가지고 수행하는 납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를 붙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타인에게 다른 견해를 구하기도 하며, 그것으로써 선지식에게 자기의 견해를 점검받기도 하고, 납자를 지도 내지 교화해주는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유행이 널리 번져갔다. 이와 같은 방식을 수행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문자선(文字禪)이라고 말한다. 곧 문자선은 공안을 바탕으로 거기에 문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깜냥을 발휘하여 비평하는 것으로 수행법을 삼는다는 점에서 공안선에 대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자선의 경우 공안에 대하여 갖가지 분별을 부여하고, 또 다른 분별을 유도해준다는 점에서 제방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안에 대한 납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후인을 위한 참고로 활용하도록 안내해준다는 점에서 선수행의 역사에서 송대에는 공안선과 더불어 크게 유행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선문헌이 등장하였고, 공안만 선별하여 공안집으로 엮어내기도 하였으며, 납자의 견해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화 내지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선문에서는 문자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문자선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수많은 선문답을 제시함으로써 납자의 경지를 점검하는 일종의 시험 내지 통과의례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문자선에서 공안은 선지식에게는 일종의 시험문제이기도 하였는가 하면, 납자에게는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관문의 역할로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곧 묵조선(默照禪)의 수행에서는 공안이 다양하게 그리고 널리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자선으로 인하여 드러난 역기능은 공안으로 분별심을 조장하고 점차 형해화되며 도그마적인 모습을 갖추어가게 됨으로써 처음에 공안이 출현했을 때의 참신한 측면이 점차 사라지고 경력 쌓기 내지는 언어유희의 측면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로써 문자선의 분별적인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점차 공안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공안을 더 이상 문자놀음의 대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그 자체를 정신집중의 방법, 그리고 제반의 번뇌를 타파하는 무기의 측면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소위 간화선(看話禪)의 수행법으로 출현하였다. 따라서 간화선은 한편으로는 공안선이 지니고 있는 공안 전체에 대한 사유와 참구라는 기능을 벗어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자선이 지니고 있는 언어문자의 분별과 도그마라는 기능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출현하였다. 그것은 바로 일찍이 불조에 의하여 개시되었던 공안 가운데서 특수한 대목만 끌어내어 그 언구를 중심으로 그 어떤 견해도 가하지 않고 오로지 언구 그대로 두고 그것만 참구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참구하는 방법이었다.



조주의 일화 공안으로 삼아 무자화두 탄생시킨 화두화한 오조법연. 사진제공=정운 스님

공안 수행으로 활용한 공안선 출현
공안서 문자 활용 진일보한 문자선
채택한 언구 자체에 집중한 간화선
법연, 조주 일화서 무자 화두화 해

이로써 간화선은 단출한 언구를 채택하여 그 언구에 대한 분별의 사유를 가하지 않고 언구 그것에만 집중하는 까닭에 대단히 특수한 수행법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안에서 채택된 언구에 대하여 일체의 질문과 답변, 경전의 인용과 사유, 선지식의 안내와 설명 등에도 의거하지 않은 채, 자신이 채택한 언구를 언구가 지니고 있는 자체의 의미까지도 부정하고 일종의 이미지로 삼아 거기에 집중적으로 참구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행의 방식으로 인하여 간화선의 수행법은 대단히 특수한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곧 간화선에서는 특정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까닭에 정해진 답변이 없고, 그 어떤 사람과 동일한 답변이 없으며, 반면에 동일한 언구에 대해서도 무수한 답변이 가능하고, 언구 자체에 맛이 없고 색이 없으며 냄새가 없고 소리가 없어 몰자미(沒滋味)한 상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올바른 답을 끌어내주는 기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활구(活句)로 통한다.

이에 선종사에서는 공안선과 문자선과 간화선의 순서로 형상되어 왔는데, 이들 선수행의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가령 공안선은 불조가 개시해준 공안을 통째로 들어 사유하고 참구하는 것으로 공안을 전제(全提)하는 방식이라면, 문자선은 공안에 대하여 문자를 동원하여 능력껏 개인의 견해를 가하여 비평하는 자세로 수행 및 접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고, 간화선은 공안 가운데서 특수한 부분의 언구를 선택하여 그 언구를 중심으로 언구 자체에 대해서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참구하는 것으로 공안을 단제(單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각각 구별된다.

예를 들어본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등 간화선의 전통을 지켜온 선종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화두로써 제기되어 있는 무자화두(無字話頭)에 대하여 〈굉지선사광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승이 조주 종심(趙州從諗, 778~897)에게 물었다.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유(有)" 승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강아지의 가죽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개의 몸을 받은 것이다." 또 승이 조주에게 물었다.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무(無)" 승이 물었다. "일체중생개유불성(一切衆生皆有佛性)이라는데 어째서 강아지에게는 무(無)라고 하는 것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강아지한테는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공안이 전체에 대하여 그것을 대상으로 사유하고 문답하며 참구하는 수행법은 공안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의 공안에 대하여 굉지 정각(宏智正覺, 1091~1157)은 "조주는 유(有)라고도 말했고 또 조주는 무(無)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강아지의 불성은 천하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얼굴이 반반해도 말이 곧은 것만 못하니, 마음이 진실하면 말이 거칠어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칠백 갑자의 노련한 선백인 조주 종심(趙州從諗)도 때로는 사람에게 속아 눈동자를 나귀 똥과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비평하였다. 위의 글은 고스란히 고려시대 진각 혜심(眞覺慧諶, 1178~1234)에게 인용되어 〈선문염송〉에 수록된 이래로 한국의 선문헌에서 무자화두의 전형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되어오고 있다. 그리고 무문 혜개(無門慧開, 1183~1260)는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불성은 불법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만약 자칫하여 유무에 걸리면 그대로 목숨을 상실하게 된다."는 송을 붙여서 비평하였다. 굉지 정각 및 무문 혜개와 같이 공안에 대하여 비평을 붙이는 경우를 가리켜 문자선이라고 말한다. 한편 위의 공안 가운데서 '무(無)'라는 글자만 끌어내어 '무자(無字)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참구하는 경우는 간화선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무자화두의 경우에도 조주의 일화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직 화두(話頭)라고 말하지 않는다. 조주의 일화는 단지 무자화두의 연원에 불과할 따름이다. 조주의 그 일화가 본격적인 화두로서 생명과 기능을 가지고 출현한 것은 북송시대 오조 법연(五祖法演, 1024~1104)이 조주의 일화를 공안으로 삼아 납자들에게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관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렇게 보면 간화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무자화두가 탄생한 역사는 아직 천년이 채 되지 않은 셈이다. 이후로 원오 극근(圓悟克勤, 1063-1135) 및 그의 제자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에 이르면서 무자화두는 선종사에서 대표적인 화두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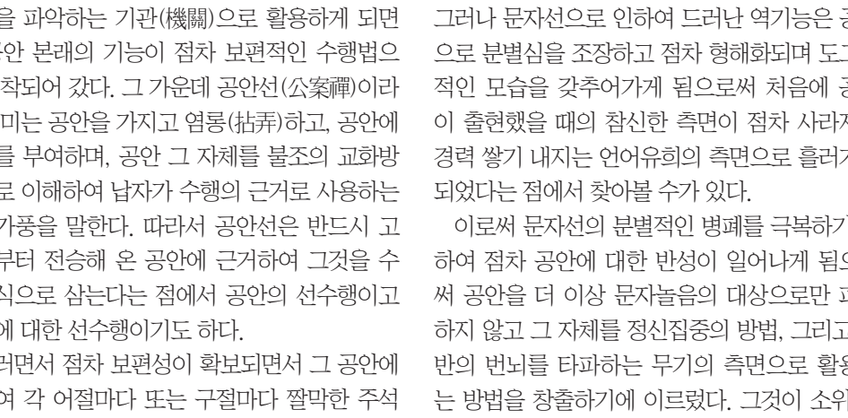
〈동국대 HK교수〉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검색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투자자 구함

• 납골당및 사찰 건립예정
• 투자금액 40억원 1년이내 상환
• 수익금 40억은 4년 이내 지급
• 담보해드림
• 화장장 10분 거리(서울인근)
• 잔고증명서 확인후 상담

☎ 010-6545-2020

신화불사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⑬ 아미타독존 내영도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쇼호지에 소장된 고려불화 〈아미타독존 내영도〉는 죽음의 순간, 자신을 맞이하러 온 아미타 부처님을 표현했다. 이 같은 내영도는 독존, 삼존, 팔대보살 등 다양한 도상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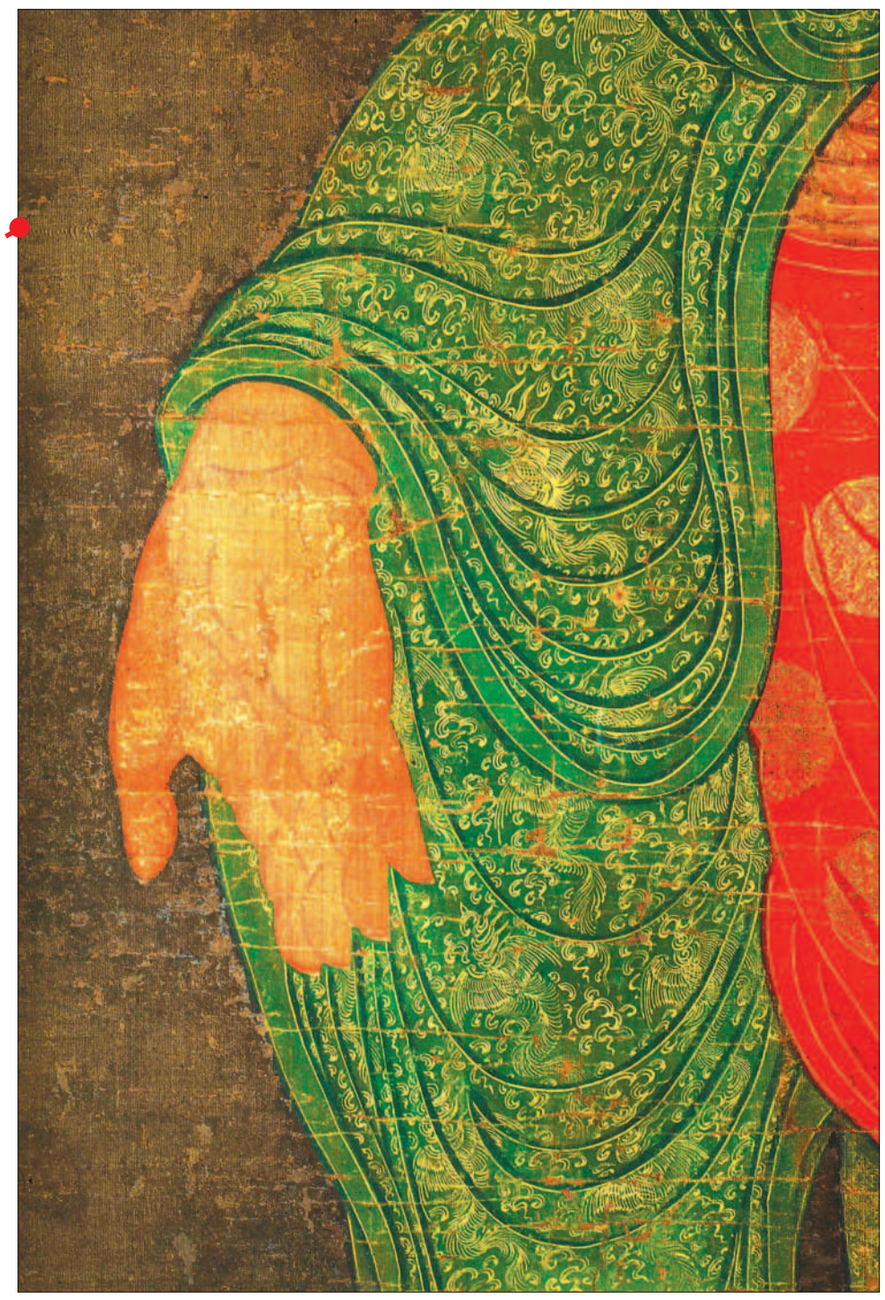


임종 순간 내민 자비 손길

부처님이 내민 후덕한 손.(그림2) 죽음의 순간, 두려움에 떠는 중생에게 '두려워 말거라. 너 원대로 극락으로 가자' 며 손바닥을 내보이고 계시다. 오른손은 손가락을 동그랗게 말아 쥐어 극락세계를 설하는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계시고, 왼손은 '네 뜻대로' 라는 의미의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계시다. 나를 향해 '내영(來迎, 맞이함)' 한 모습이다. 손목까지 초록색 납의(衲衣)가 넘실대고, 옷 위에는 금빛 극락조가 물결치듯 날고 있다. 실제로 나투신 듯, 등신대 크기의 아미타 부처님의 장엄한 모습에 넋을 잃는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일본 교토 쇼호지(正法寺) 소장 고려불화 〈아미타내영도〉의 상반신 부분의 모습. 오른손은 극락세계를 설하는 설법인(說法印)을, 왼손은 '네 뜻대로'라는 의미의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계시다.

그림②. 아미타부처님의 내민 손. 여원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네 뜻대로 극락정토로 이끌겠다는 의미다.

아미타불 맞이하는 고려불화
독존 · 삼존 · 팔대보살 '다양'
임종 순간 중생 구제 표현해
염불, 자기 마음 찾는 수행법

〈아미타 내영도〉 다양한 형식들

임종의 순간 나투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미타 내영도' 라는 장르이다. 고려후기 얼마나 많은 귀족 및 왕족들이 아미타 내영도를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는지는 지난 연재에서 다룬 바 있다. 수요가 많아서였는지, 고려불화의 내영도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정면에서 보았을 때, 존상이 몸을 좌측으로 3/4정도 틀고, 한 손을 길게 내밀어, 대각선 아래에 마치 중생이 있는 양 내려다보며 '어서 오시게' 하는 듯 몸짓을 취하고 있는 것이 '내영도' 형식의 기본이다.

실제로 대각선 아래에 시선이 닿는 곳에, 곧 임종을 맞이할 발원자의 모습이 그려 넣어져 있기도 하다. 삼성 리움미술관 소장 〈아미타삼존 내영도〉의 경우, 왼쪽 하단 구석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극락왕생을 바라는 불화 발원자의 실제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측면관이 아닌 정면관의 내영도도 존재하지만, 내영도 형식으로는 좌향좌의 측면관이 압도적이겠다.

이러한 기본 형식에 아미타부처님이 단독으로 내영하셨는지, 아니면 협시보살을 대동하고 내영하였는지에 따라, 형식이 다채로워진다. 단독이면 〈아미타독존 내영도〉,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과 함께하면 〈아미타삼존 내영도〉, 팔대보살과 함께 큰 무리로 오시면 〈아미타팔대보살 내영도〉가 된다.

일본의 경우 역시, 고려 시대와 유사한 시기인 가마쿠라 시대에 아미타 내영 관련 불교미술이 단독 주제로 한 시대를 휩쓸 만큼 많이 조성되었다. 조각상으로도 많이 조성되었지만, 불화로는 '아미타25보살 내영도' 라는 주제가 크게 유행하였다. 제목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 25명이나 되는 보살들을 이끌고 큰 무리를 이루며, 임종하는 중생의 영가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는 그림이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5보살 내영도는 없고, 8대보살의 무리가 가장 큰 무리로 묘사된다.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내영 조각상 또는 불화의 아미타 및 그 무리는 무조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칠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채로운 채색과 금선묘의 문양으로 고려불화만의 독자적인 섬세함과 격조 높은 화려함을 과시한다고 하겠다.

중생 구제를 위한 몸짓

고려 시대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맞이함을 이렇게도 절실히 바랐던가. 현존하는 내영도 형식의 작품을 보면, '아미타독존 내영도' 가 8점, '아미타삼존 내영도' 가 14점(측면관 10점, 정면관 4점), '아미타8대보살 내영도' 가 4점으로, 총 26점으로 집계된다. 내영을 나온 성중의 무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구제의 힘이 더욱 막강해 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오롯한 존재감이 돋보이는 작품은 단연 독존의 내영도이다. 일본 시마쯔(島津) 가문의 구장(舊藏) 작품으로 알려진 1286년명 '아미타독존 내영도' 의 경우는, 아미타 부처님이 (정면에서 보아) 오른쪽의 극락 방향으로 이미 몸을 틀어 발을 옮기면서, 고개를 뒤로 돌리고 상반신을 틀어 왼손을 길게 내밀고 있다. 당시 왕과 왕비였던 충렬왕과 원성공주가 임종 시에 일체 장애물들 모두 사라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맞이함을 받아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며, 총신 염승익이 발원한 작품이다.

작품 속 아미타 부처님은 '얼른 내 손잡고 극락 가자라' 는 모양새가 역력히 드러나도록 묘사되었다. 자꾸만 뒤처지는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이쪽으로 빨리 오라는 손짓과 몸짓이다. 묘사가 이쯤 되면, 당장이라도 그림 속 부처님 손을 잡고 싶은 깊은 충동이 일어난다. 내게로 뻗은 저 손만 잡으면, 이 고단한 속세를 지금이라도 벗어날 것만 같다. 아미타 부처님의 풍만하고 신비한 자태와 깨달음의 고요한 빛, 그리고 넘실대는 극락의 풍경을 가사 장삼에 휘황찬란하게 펼치며, 나를 향해 간절히 길게 내민 손! 단독 존상의 아미타 부처님의 우아한 몸짓과 고귀한 아름다움은 깊은 매력과 함께 묘한 감동을 일으킨다.

'맞이함'의 등급 차이

〈무량수경〉에는 〈관무량수경〉의 '9품 왕생' 의 원조가 되는 '왕생의 원리' 가 언급되어 있다. 상 · 중 · 하 3등급으로 중생의 근기를 나누고, 왕생에도 인과법(因果法)이 어김없이 적용됨이 설파되었다. 상 · 중 · 하 각 등급의 중생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인지, 지면상의 한계로, 궁금하신 독자님들께서는 〈무량수경〉 제5장을 참조하시기를 권고 드린다. 본 지면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의 과보로서의 왕생 내용만 요약한다.

"상(上)근기의 중생은 임종 시에,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그의 앞에 나투신다. 부처님을 따라 극락왕생하는데, 칠보 연꽃에 화생하여,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不退轉) 자리에 머문다."

즉, 상근기 중생은 죽는 순간,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내영을 받는다. 찬란한 빛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연화 화생' 한다는 것이다.

'연화 화생' 이란 말 그대로 '연꽃에서 태어난다' 라는 것이다. 입태(入胎)하여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자리인 연꽃에서 태어난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선 공덕을 쌓고 수행정진한 과보로 속세가 아닌, 깨달음의 세계에 태어난다. 그리고 다시는 추락 없는 불퇴전의 열반자리에 그대로 머문다고 한다.

"중(中)근기의 사람들이 임종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 나타난다"고 한다. 아미타 부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화신이 나타나는데 그 화신을 따라 왕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근기와 달리, 왕생의 자리와 머무는 등급에 차이가 언급되어 있다.

가장 낮은 하(下)근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근기라도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의 조건은 "임종 시에 마음을 한결같이 모아 다만 열 번이라도 아미타부처님을 지극 정성으로 외우면" 꿈결에나마 어렴풋이 아미타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이다. 하근기라도 모두 구제하는 강력한 타력신앙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멀쩡히 살아생전에도 염불을 안 하던 사람이, 그 정신없는 숨 넘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니 어서들 평소에 염불 하시오!"

한국 대표 수행, '염불'의 전통

신앙적 맥락에서 가장 널리 유행한 수행법이 바로 '염불 수행' 이다. 한국불교에 있어서 염불수행의 전통은 원효 스님에서부터 나옹 스님, 요세 스님 그리고 근대의 청화 스님까지 그 맥이 아주 넓고 깊다. 다양한 부처님 보살님의 명호 또는 다라니 등이 염불되지만, 그 중에서도 시대를 불문하는 으뜸이 '나무아미타불' 이겠다.

"우리의 본 마음자리를 캐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본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주의 정기(精氣)입니다. 따라서 염불이나 108배, 오체투지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나 깨나 밥을 먹으나 일을 하나 어느 때나 부처님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한 번 외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만큼 우리 마음도 정화되고 우리 업장이 녹습니다. 거기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참다운 공부입니다." —청화 스님 법문집서 발췌 인용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박원자의 母情佛心 ⑬ 종연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인천 동국명상원장 종연 스님은 어머니의 권유로 불문에 귀의해 출가수행자가 됐다. 스님의 어머니는 평생을 출가 수행자처럼 살았고, 아들 넷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라"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하는 간화선 집중수련회에 다녀왔다. 몇 년 동안의 회사생활에서 막 벗어난 서른 살의 딸과 함께였다. 오래 전부터 꿈꾸어왔던 일이라 설레임을 안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선방에도 앉았다. 묵언해야 했지만 쉬는 시간이나 잠자리에 눕기 전, 딸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마음공부를 시작한 딸이 고맙고 기특했다. 자신이 마주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시작한 108배 100일기도를 시작한 지 21일만이었다. 딸을 보면서 느꼈다. 역시 엄마와 자식은 하나의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엄마의 진리에 대한 확신에 비례해 자식의 내면도 깊어진다.

어느 곳 어느 때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로써 그의 영혼을 맑게 하리라.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리라. 죽어 다비할 때까지 중생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며 살아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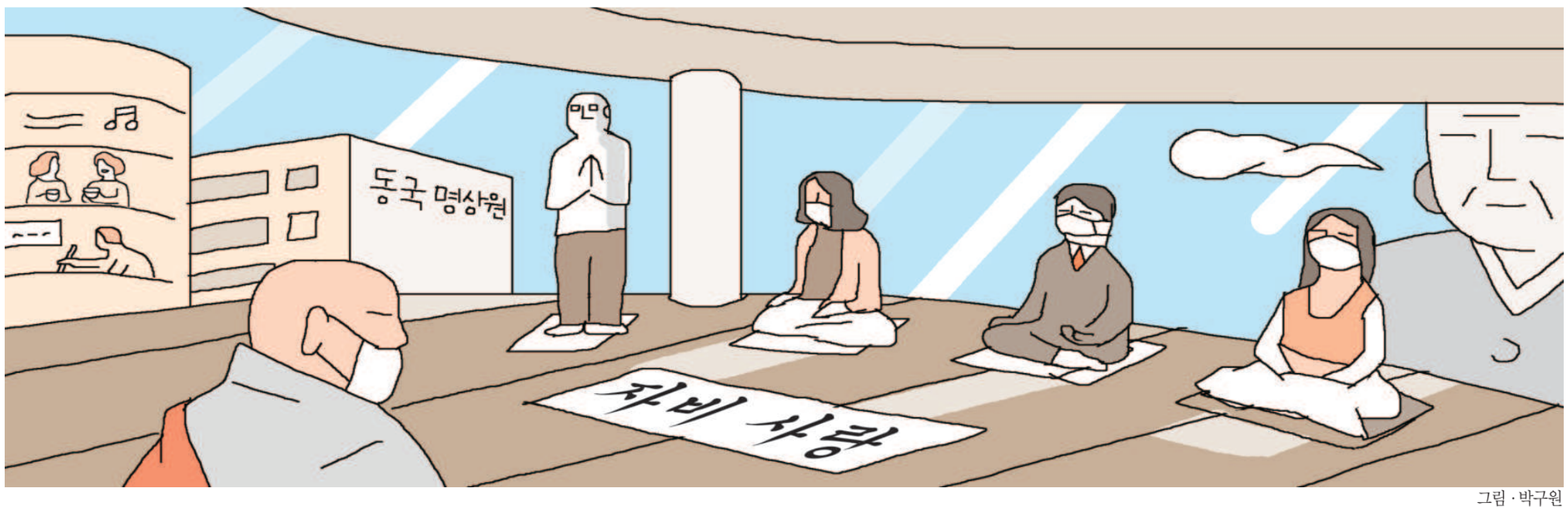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젊은 시절, 이제부터 완벽하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발원하며 저 글을 썼다는 종연 스님에게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을 했다.

"베풀기만 하고 사는 삶이 때론 힘들지 않으세요?"

"산다는 것은 살아감이 아니고 살아짐입니다. 살아감은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고 살아짐은 이타행 그 자체거든요. 이타행이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타행으로 바꾸는 일은 참 어려워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어요."

몇 년 만에 찾아뵌 종연 스님의 직함이 바뀌어 있었다. 동국명상원장. 인천문학경기장 지하철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선학동에 4층짜리 명상원이 들어서 있었다. 예전에 왔을 땐 사무실로 쓰던 작은 가건물이 있던 곳이다.

명상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스님의 불심은 철저히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 12년 전 구순을 넘기고 돌아가신 종연 스님의 어머니는 아들만 넷을 두었다. 그 중 셋째 아들인 종연 스님은 대학을 다니다가 출가했고, 막내아들은 중학교 때 출가를 시켰다.

"어머니는 출가자처럼 사셨어요.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수산물을 파는 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잘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절에 다니시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불사에 앞장서셨죠. 어렸을 때부터 바랑을 하나 메고 동네곳곳을 다니며 탁발을 다니시던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바랑 속엔 집집에서 얻어온 귤이며 당근, 쌀 등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해서 어머니는 절에 가져다 드렸죠. 염불은 출가자인 저보다 더 잘하셨죠. 제가 학인 시절에 염불을 하는데 다가와서 잘못되었다고 조용히 지적해줄 정도였으니까요."

방황하던 셋째 종연 스님
어머니 권유로 불문 귀의
아들 넷 중 2명 출가시켜
항상 이타적 삶을 강조해

늘 절에 갈 때는 셋째 아들을 주로 데리고 다녔던 어머니의 기도가 더 깊어진 것은 종연 스님이 중학교에 다닐 때다. 위로 형 둘이 월남전에 참가했다. 울며 뜯어말렸던 어머니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참전하겠다는 젊은 혈기의 아들들을 끝내 붙잡지 못했다. 첫째 아들은 비둘기 부대에, 둘째 아들은 백마부대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는 아예 사랑방에 불단을 차렸다. 아침저녁으로 절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불을 드리고 염불하며 기도했다. 오로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 둘의 무사귀환을 위한 기도였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셋째 아들의 불심도 깊어갔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던 어느 날 여러 어른들과 앉아 법문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가 가슴에 내려 앉아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마음이 곧 부처다."

어린 소년의 눈엔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법당의 부처님이 부처인데, 마음이 부처라니. 그렇다면 부처가 되면 저렇게 법당에 앉아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움과 함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마음을 찾으면 부처가 되는가? 마음이 무엇인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만들어 화두가 되었고 마음을 규명하는 출가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 어릴 때부터 사색적이고 천문학 등 미지의 세계를 동경했던 어린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다. 조용히 어머니가 아들의 변화를 보고 있었으리라.

어머니의 기도가 날로 깊어가던 어느 날 월남전에서 큰아들이 제대를 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곧 둘째 아들도 돌아왔다. 참전한 지 8개월만이었다. 총상을 입고 돌아왔으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간 작은 부상이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부처님이 주신 가피라고 여겼다. 기도가 더 절절해졌다.

그러나 세상 모두 어머니의 존재는 무수한 고통과 직면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강인함을 담보하지 않던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나머지 아들 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숙제를 안겼다. 이번엔 어려서부터 몹시 병약했던 막내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구인사로 갔다. 어머니로서는 병약한 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부처님 품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멀리 단양에 아들을 두고 온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을 두고 오는 마음이 쓰렸으리라. 다행히도 아들은 차츰 건강해지면서 출가의 길로 들어섰다. 22살에 군대에 다녀온 후 세속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 아들은 건강하게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잘 살았으니, 어머니는 그것도 부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번엔 셋째 아들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반항적인 기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부도 잘하고 불심도 있어서 기대가 남달랐던 아들이 월사금을 속여서 돈을 더 타내고, 시내에 나가 하숙을 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마련해주면 그것을 팔아서 라면을 사먹기도 했다.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끝내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출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정의로움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아들의 강한 성격이 어디로 뻗을지 몰라 염려가 되었을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생각해봅니다.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출가를 했으니까 계율을 지키면서 대자유인의 길로 들어올 수 있었겠죠. 자식은 어머니가 가장 잘 아니까 어머니가 제 기질을 알고 일찌감치 출가를 권한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출가는 어머니의 강요가 80%였던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스님께 여쭈었다. "어머니가 강요한다고 출가가 되나요?"

"어머니는 세속에서의 삶이 허망하다는 것을 아셨겠죠. 아버지께선 많이 배우고 박학다식한데다 사업도 성공했고 점잖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울산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작은 어머니를 두고 사셨거든요. 어머니는 내색은 안하셨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돈이나 명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으며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순간 진솔하고 겸손해지죠. 자기 본성만 들여다보면 절대로 허투로 살 수 없잖아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그것을 아셨을 테고 그래서 제게 출가를 권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음'을 규명해보겠다는 화두를 품고 있었던 터라 비단에 수놓듯 자연스럽게 출가가 이뤄진 것이죠. 제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그 뿌리도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드님 넷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셨을까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고 부자로 살고, 명성을 얻는 삶, 이런 것 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성품이 강직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자식들에게 관대한 편이었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매를 들어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래서인지 저도 출가해 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사업을 하신 탓에 풍족한 편이어서 집이 여러 채였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주어 무상으로 살게 하셨죠. 그러면서도 집집마다 들러 탁발을 해서 절 살림에 보태신 걸 보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하심을 배우셨을까 싶습니다. 나누는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철저히 실천한 분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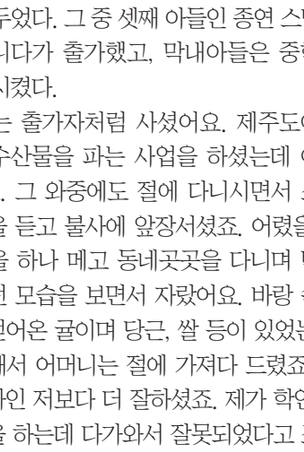
강인했던 스님의 어머니도 마음에 드는 자식과 살고 싶어 하는 여느 어머니와 다르지 않아 수행자 아들이 사는 절에서 살고 싶어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종법에 맞지 않는 일이어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는데, 종연 스님은 그 일이 가장 회한으로 남는다고 했다.

종연 스님이 오랫동안 꿈꾸고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동국명상원은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의 공간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수행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명상협회에 소속된 인천지부로, 24시간 개방하는 열린 참선방, 집중명상실, 명상 강의실, 강연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다. 자연음식을 배우고 먹을 수 있는 채식전문 식당과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카페도 있다. 명상프로그램으로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데일리 명상, 명상에 대한 체계적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명상 아카데미, 명상이 낯선 사람을 위한 스터디 명상, 개인과 단체의 특성에 맞춘 커스텀(Custom) 명상, 주말 집중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도반들은 나이 들었으니 편히 살지 왜 일을 사서 만들었냐고 해요. 그러나 출가수행자는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존재인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중생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죠."

그렇게 말씀하는 종연 스님에게서 일생을 길 위에서 전법하셨던 부처님의 모습과 바랑을 걸머지고 탁발하러 다니셨다는 스님의 어머니 모습이 겹쳐보였다. 〈작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온 영성계의 클래식.
개체성을 넘어서자마자 참자아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내 안의 나
참나찾기의 마지막 여정

삶의 진실찾기 게임에 몰두하던 저자는 어느 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받아적기 시작하고, 이 말씀들은 나중에 책으로 발간되어,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된 '거룩한 존재'의 비밀을 열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풍요의 삶을 위한 생각활용법까지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 조셉 베너 / 유영일 옮김
* 국판 | 200쪽 | 값 12,000원

세상 전체를 떠받드는 거룩한 사랑의 큰 손이
내 숨결보다 가까운 어딘가에서 느껴진다. —아마존 독자 서평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내 실존의 중심에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잘것없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왜 그렇게도 끈질기게 남아 있어서 모든 것이 구족되는 활활발발한 인생은 곧잘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는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 물질 위주의 의식 찌꺼기들은 어찌하여야 깨끗이 청소될 수 있을까? 나의 참된 주인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린다.

올리브나무 010-7755-2261, 070-8274-1226

직접 주문
02) 2004-8253
010) 7755-2261

* 교보, 알라딘, yes24, 인터파크 등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반야참회 영상강의 수강생 모집

〈반야참회〉의 저자 혜룡스님의 반야참회 영상강의를 개강합니다.

참회는 불교신행의 기초입니다. 기복신앙뿐 아니라 수행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들이 참회법을 잘 몰라서 신행에 혼란과 방황을 겪고 있습니다.
반야참회는 기존 참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떤 행위가 악업인지, 그것을 어떻게 참회하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기도에는 물론이고, 화두참구나 명상의 보조적 수행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인터넷(Zoom)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반야참회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과 함께, 화상통화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혜룡스님과 문답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 반야참회를 접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자인 혜룡스님에게 궁금했던 사항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회법을 잘 알아서 기도와 수행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싶은 불자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혜룡스님 약력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 수료.
• 〈반야참회〉 저술(2012년)
• 범어사, 쌍계사, 화엄사 승가대학 교수 역임.
• 센텀 일심사 주지 역임.
• 서울, 부산 불교방송(bbs)에서 반야참회 소개.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이내.
개강 : 2021년 6월 1일(화)
기간 : 5개월. (강의 진도에 따라 1개월 연장될 수 있음)
회비 : 월5만원. 부부동반 신청과 35세 미만은 월3만원.
교재 : 〈반야참회〉(불광출판사). 교재가 없어도 수강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교재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됨. 가격은 13,000원이며 서점 구입 가능.
문의 전화 : 010-8995-0743

반야법회(반야참회 신행모임) 홍보팀

멸도 않으면서도 방편으로 멸도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㉕ 보살도로 이룬 부처님의 수명

"선남자들이여, 여래가 설한 경전이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라. 혹은 자기의 부처 몸을 설하며, 혹은 남의 부처 몸을 설하며, 혹은 자기 몸을 보이며, 혹은 남의 몸을 보이며, 혹은 자기 일을 보이며, 혹은 남의 일을 보이나, 모든 말이 진실하여 거짓 없느니라.

여래는 삼계의 모든 현상을 사실 그대로 아나니, 나고 죽는 생사의 경계에 나오거나 물러감이 없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도, 열반에 드는 것도 없어서 진실이라 할 것도 없고 거짓이라고 할 것도 없으며,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중생이 삼계를 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니라.

온갖 중생들이 갖가지 성질, 갖가지 욕망, 갖가지 행실, 갖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는 탓에, 온갖 선근을 내게 하고자 하여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언사로 온갖 방편으로 법을 설하여 부처의 일을 하되, 잠시도 쉰 일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내 성불한 지 그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지겁이라 항상 그대로 있어 소멸되지 않느니라.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이 지금도 아직 다하지 않아 다시 위에 말한 수명의 배나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 참으로 멸도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곧 이르기를 '장차 멸도를 취하리라' 하노니, 여래는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부처님이 오래도록 세상에 머문다면, 박덕한 사람들이 선근을 심지 않아 가난하고 천해지며, 오욕에 탐착하여 허망된 생각의 그물에 걸릴 것이며, 만약 여래가 항상 머물러 멸도하지 않음을 보면, 교만해지고 싫증을 내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을 법의 근본(法本)이라 하고 법의 주인(法主)이라 한다. 부처님을 말미암아 법이 설해지고 법을 들은 중생이 교화되고 제도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佛事)은 법을 설하는 일이다. 설한 법이 중생에게 전해지고 보여지는 것이 경전이다. 중생이 경전을 통해 법에 들어가고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언제나 삼매에 들어가신다. 〈법화경〉은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드시고 〈화엄경〉은 해인삼매(海印三昧), 〈금강경〉은 등지삼매(等至三昧)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삼매의 언어다. 다시 말해 탐, 진, 치 따위의 번뇌가 없는 마음에서 설해진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중생에게 약이 되고 감로수(甘露水)가 되는 것이다. 이 장(章)에서 부처님이 하신 특별한 말은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부처님의 수명은 다하지 않아 멸도하지 않으면서도 방편으로 멸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본래 열반에 들지 않는데 방편으로 열반에 든다는 말로, 생사의 경계로 말하면 죽지 않으면서 죽는다는 말이다. 이는 〈열반경〉에 설해진 말과 맥락을 같이한다. 〈열반경〉 대의를 불신상주설(佛身常住說)을 제1로 친다. 부처님의 몸이 없어짐이 없이 항상 그대로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부셔지지 않는 몸이라 하여 금강신(金剛身)이라 한다. 〈월유품〉에는 달이 서산에 지는 것과 같아 이 세상에서 지는 것이 저 세상에서 뜨는 것이라는 비유가 있다. 비록 육체의 죽음이 있더라도 육체가 참 생명이 아니며, 법신의 참 생명은 불생불멸이라는 뜻이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새로운 불신관(佛身觀)이 등장하게 되었다.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생신(生身)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으로서 부처님 역할이 중요시되어 가르침이 존중되고 찬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 와서는 처음에는 반야부 경전 등에서는 영구불변하는 실체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을 초월적 존재 또는 신앙의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다가 뒤에 와서는 부처님을 영원한 존재로 인식하고 부처님에 대한 공양, 예배 등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부처님을 초월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신앙에서는 부처님을 신(神)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비록 부처님을 삼신(三身)으로 설명하지만 법신(法身)이 진불(眞佛)이므로 〈법화경〉이나 〈화엄경〉은 법신 공덕 위주로 법을 설하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생명 가진 존재 이롭게 하는 '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㉕ 요익유정계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쉘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의 그림동화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The Giving Tree)〉를 읽어보았을 것이다. 이 책에서 나무는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행복해한다. 나무는 소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돈이 필요한 그에게 사과를 내어주기도 하고, 집이 필요한 그에게 나뭇가지를 내어주기도 하고, 배가 필요한 그에게 나무줄기를 내어주기도 하고, 편안히 쉴 곳이 필요한 그에게 나무 밑동에 앉아서 쉬라고 한다.

동화 속의 나무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소년에 대한 나무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비슷하다고 여긴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행복해하는 나무보다 적당한 선에서 거절하는 나무가 더 나을 것 같다고 하기도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소년에게 다 주어버린 나무는 다른 이에게 줄 것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나무가 소년에게 나뭇가지와 나무줄기를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누군가의 놀이터일 것이고, 누군가에게 사과도 계속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필요한 것만 나무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소년이 얄밉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자기 잇속만 차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헌신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진심으로 행복해한다면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를 실천하는 보살일 것이다. 이 계는 섭중생계(攝衆生戒)라고도 하는데,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계이다. 〈유가론(瑜伽論)〉에서는 구체적으로 11가지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즉, ①이익을 수반한, 다양한 중생들의 행위에 대해 조력자가 되며, ②계속해서 생겨나는 중생들의 병고 등을 간병하는 조력자가 되며, ③세간적인 이익과 출세간적 이익들에 대해 법의 교설을 선행요소로 하고 방편을 가진 설명을 선행요소로 하는 바른 이치를 설명하며, ④은혜를 베풀었던 중생들에 대해 받은 것의 앎을 보호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일으키며, ⑤사자와 호랑이, 왕과 도둑, 물과 불 등의 다종다양한 공포를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보호하며, ⑥재물과 친척으로 인한 괴로움에 빠진 자들에게 비탄을 제거하며, ⑦생필품이 결여된 중생들에게 모든 생필품을 제공하며, ⑧이치에 맞게 올바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여법하게 대중을 인도하며, ⑨언설과 담론과 축하를 위해 적당한 때에 그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받으며, ⑩세간적인 이익을 설명하며, ⑪소환되었을 때에 오가는 것이다.

이 11가지 행위는 요익유정계의 예시로 볼 수 있으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가 이 계에 해당할 것이다. 이처럼 바람직한 대승 보살의 삶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동경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는 이가 없다고 한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적어도 동화 속의 소년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나라면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① 괴로움 원인과 윤회 비밀 (상)

우리가 태어난 원인은 業 때문

불자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혹시 나의 괴로움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나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회나 국가를 원망하며 세상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함께 사는 가족이나 헤어진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생긴 원인은 그도 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괴로움의 원인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결코 괴로움을 벗어나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 남 탓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악업인 동시에 또 다른 악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괴로움이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내가 세상에 태어난 비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괴로움의 비밀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불자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원인은 바로 내 스스로 지은 업(業)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을 짓는 원인은 무명(無明) 업식(業識)으로 인한 애욕과 갈애(渴愛)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중생은 무명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어 애욕과 갈애를 일으키고 마음의 장애로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켜 삼업(三業)을 지었습니다. 그 업력으로 인해 윤회하며 중생의 몸을 받아 또 이렇게 중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業 원인, 무명 업식으로 인한 갈애 때문
진여본성, 무명으로 인연에 따라 생멸해

이렇게 끝없이 업을 짓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의지 즉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 마음을 심(心), 의(意), 식(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은 제8아뢰야식(阿賴耶識)을 말하고, 의는 제7말나식(末那識)을 뜻하고 식은 제6의식(意識)을 의미합니다. 제8아뢰야식과 제7말나식은 심층의식인 무의식에 해당하고 제6의식은 표층의식인 의식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 무의식인 제8아뢰야식이 바로 업의 주체이며 윤회의 주체인 것입니다. 인간이 제 각기 모습과 제 각각의 삶을 살아가며 불평등한 것도 바로 이 지은 업이 다르고 지은 업으로 만들어진 제 각각의 아뢰야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뢰야식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념의 청정심인 진여본성과 또 다른 하나는 망념을 일으키며 생멸하는 오염된 중생심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마음의 본성은 항상 망념이 없는 무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마음의 본성은 불생불멸하여 항상 청정한 무념인 진여법신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야마천궁품'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과는 차별이 없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고 하여 중생이 가진 마음의 본성은 바로 부처와 똑같은 진여본성임을 설하고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마음 본성은 무량한 공덕을 갖춘 불성의 진여법신인 부처인 것입니다. 이 진여법신은 바로 우주 생명의 근원이며 일체 중생심의 근원이며 일심인 한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이 진여본성인 한마음은 무명 때문에 불생불멸의 진여의 모습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생멸하는 상을 형성하는 마음을 '아뢰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8아뢰야식은 불생불멸의 진여본성과 생멸하는 중생심을 함께 아우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청정성과 오염성을 함께 갖춘 이중성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47호 | 17 | 전면광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드는 이가 있으면
설사 커다란 불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속성 5개월 과정 •한문 몰라도 됨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사주명리학·성명학 수강생 모집

❊ 3개월 완성 ❊
❊ 왕초보자 환영 ❊
1:1 특별과외도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2~3회 강의
강의 장소 : 부산시 또는 경주시
※ 카드결제가능

010-2523-7771

천도재, 49재 회양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스님들의농장 운영보살

❖ 도고온천에 2박3일
❖ 불자들은 무료로 콩새싹밥 칡밥에 도전하시고져 하는분
❖ 고졸이상 운전 컴퓨터 음악이나 글짓기
❖ 임명이 결정되면 준성직자 100일 교육
❖ 지장성모님 해탈세계 밝고맑은 사람들

만불사 043-745-3332
010-3410-0004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산 갓바위 근처
• • •
010-4766-3200

사찰 세무 및 회계 신고대행

저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에서는 우리 사찰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 신고대행
◦ 사찰 회계 장부 및 결산서 작성 대행
◦ 상속증여 및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전화 : 051-996-0308
주소 :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가 피

아주 특수한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易(역) 수강생 모집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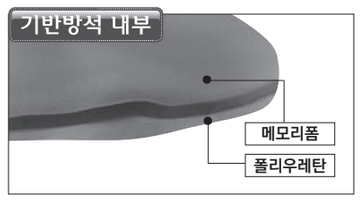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47호 | 18 | 전면광고

계를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나니, 지혜는 사람의 보배요, 복은 도둑맞는 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경기
◎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6억
◎위치 : 대전서구포교당
◎면적 : 35평
◎보증금1000/30만원
◎시설비1000조정가
◎APT상가, 포교용이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전통 암자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공원같은곳(종교용지 900평)
- 은행대출 1억5천안고, 2억4천5백만 합계 3억9천5백만(공원같은곳)
-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 법당(요사채 최신평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대지 230 평
-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15년 기반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 보증금 1000만, 월세, 관리비 60만원
-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 국유지 7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불화등)
- 가액 12억

010-6325-5112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235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8천5백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7473-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1층 : 93.3725㎡(방음시공)
- 법당, 방1, 공양실
-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 권리금 20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5거리 (당산나무옆 2층)
- 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 권리금 : 1천5백만원(바로 법회 가능)
-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3049-5816

사찰(급)안내

- 위치 : 사찰(급)안내
- 부산동래구(부지1천평, 건물4백평)
- 가액은 상담(방문)후 결정
- 전시컨벤션 ● 노인복지시설
- 불교명상센터및 힐링캠프
- 미래를 선도(先導)하려는 스님, 보살님, 거사님께 추천

010-2822-108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안양시 관악산 (관악산 둘레길 참배객 많음)
- 대지 : 360평 외 국유지 약 200평
- 건물 : 6동 외 미륵전
- 가액 : 18억

010-5330-85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100평 ●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 전.월세가능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807-0509

추모공원 안내

- 수목장10,300평
- 사찰과 납골당 부지 6,000평
- 김해광제IC에서300m
- 가액 70억

010-2913-79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1천3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양면 와티길 212, 총평수 대략500평
- 바다가보이고 넓은잔디밭에 조경 잘되어있음, 대웅전, 요사채2층
- 사천읍15분거리 축동IC 5분거리
- 매매가 4억, 대출 1억가능
- 월.전세 문의불문 꼭사실분만 전화 (사찰구입시 몸만오시면됨)

010-5430-467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炎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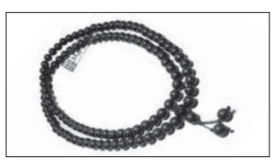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문수사리보살



묘길상(妙吉祥)은 문수사리동자, 문수사리법왕자라 칭하기도 한다. 본존은 중대팔엽원의 4보살의 한 분으로서, 문수원의 주존(主尊)이며, 동진이라 할 때는 어린이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처럼 이보살의 지혜가 명료하여 걸림이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좌 협시보살로 푸른 사자를 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지만 반야부 경전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밀교에서는 대일여래의 내증(內證)의 덕(德)을 나타내고, 밀호를 길상금강, 반야금강 등이며, 〈대일경〉에서는 시원금강동자라 하고, 〈이취경〉에서는 일체무희론여래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또는 진언의 숫자에 따라 일자문수, 오자문수, 육자문수, 팔자문수 등으로 표현하고, 상투의 숫자에 따라서 일계문수, 오계문수 등으로 나타내며, 또는 각부에 따라서 불부에는 팔자문수, 연화부에는 육자문수, 금강부에는 오자문수, 단순히 문수라 할 때는 오자문수를 말한다. 본원에 안치된 문수는 동자의 모습으로 다섯 개의 상투가 있다.

형상 - 황금색, 머리에는 오계(五髻, 5개의 상투)를 결하고, 동자(童子)형을 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왼손에는 삼고저를 얹은 자루인 청연화를 들고 백 연화대좌에 가부좌를 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⑬ 지체장애인 이순애 씨

끊임없는 도전으로 삶 개척한 멋쟁이

장애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일상에서 여성이란 단어에, 장애라는 편견의 방점을 하나 더 크게 찍으며 직업, 결혼, 양육 등이 중증 장애에 이중삼중의 어려움으로 부가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도 그녀들은 각기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려운 환경을 견디며 긍정적인 삶을 이뤄가고 있다.

60 중반을 넘어선 지체장애인 이순애 씨의 삶에도 장애 여성으로 살아온 치열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그녀의 집 근처 푸른 수목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삶에 대한 소신과 꿈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자유로운 영혼이자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하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그녀는 오늘도 만나자마자 고향인 부산으로 다녀온 1박 2일 여행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다. 다대포에서 보고 싶었던 바다를 보고, 부산에서 자랐지만 난생 처음 범어사에도 갔었단다. 부전시장에 들러 어릴 적 먹었던 특산물로 장을 보아, 딸들을 위한 여행선물로 엄마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한 끼 밥상을 가져왔다고도 했다.

그녀는 장애여성으로 살면서 '장애인은 잘살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많이 했다고 하였다.

서른 즈음 집에서 독립해 서울생활을 시작했다. 시장거리에서 잡화를 파는 노점 등을 하면서 혼자 살 때, "내게 조건부라도 집을 주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도와준다면 경제적 기반을 잡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서른 살부터 마흔 살 결혼 전까지 열 번의 이사를 했다고 하였다.

그녀에게 "매우 힘들었겠다"고 묻자, 힘이 들었다기보다 이사를 하면서 사는 "재미가 났었다"고 했다. 이사를 결정하고 나면 한 단계 더 발돋움한 삶과 새로운 세계로의 희망에 신이 났고 이사짐 정리를 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변 정리를 할 수 있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낸 10년은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했지만 살만 했단다.

마흔 살에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한다. 결혼하고 난 후 처음에는 양육에 어려움이 클 것 같아 아이 없이 남편과 둘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었으나 첫 아이를 낳고 조카를 키운 경험으로 주위에서 부러워할 만큼 잘 키웠다. 둘째도 낳아 잘 키웠다. 그러나 장애인 부부에다 나이도 많고, 경제적 여건도 열악하니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다.

아이만 키우다 보니, 어느 날 못한 공부 생각이 났다. 살기에 바쁘고 아이를 키우고 사는 동안 자신을 잊고 사는 것 같아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하고 현재는 방송통신대에서 대학 과정을 공부하다 휴학 중이다.

그녀에게 열심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한 환경에서 살았다면 그녀의 열정과 꿈이 더 크게 실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일어났다.

독서지도사, 글쓰기, 그림그리기 등 하고 싶은 일은 매번 도전했다는 그녀는 우리에게도 가고 싶으면 가 보는 것, 좋아하는 것은 할 권리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하든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나이 70세를 앞두고 있다 보니 '나이듦' 이 장애보다 더 큰 걸림이 되어 다가왔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두 딸에게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항상 움직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그녀에게 지금의 삶이 곧 바른길을 가는 목표요 치열한 수행의 과정이라 여겨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부산 여행이야기를 다시 물었다. 난생처음 가 본 범어사에서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범어사에 도착하여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경내를 한 바퀴 둘러보았단다. 다음 일정이 빠듯하여 범종각 옆에서 빵과 커피로 점심을 대신하고 있는데 보살님 한 분이 다가와 "목마르지 않으세요? 집에서 우려온 차가 있는데 드릴까요?"라고 물어보더란 것이다. 그 친절함에 마다하지 않고 고맙게 차를 받아 마시면서 그 순간이 참 행복했단다. 스쳐 갈 인연이라도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그녀는 "사찰에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춰져 있고 불자들의 인식도 좋아졌다"며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부분의 편의시설도 고쳐나가도록 애써달라"는 작은 바람을 남겼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희망이 있고 없고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며 크게 웃었다.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살아온 그녀야말로 정말 멋있는 삶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진심을 담아 '엄지척'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삶에 대한 소신과 꿈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지체장애인 이순애 씨.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13 박상우 '비밀 문장'



▶ **한줄 요약**
3차원 세상과의 만남을 인식하면, 현재 에고의 집착이 줄어든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각하라



박상우 소설가는…

1988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중편소설 〈스러지지 않는 빛〉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1999년 중편소설 〈내 마음의 옥탑방〉으로 제23회 이상문학상을 수상, 2009년 소설집 〈인형의 마을〉로 제12회 동리문학상을 수상했다. 오래도록 '삶'의 근원과 '문학'의 존재 의미를 화두로 품어온 작가는 '인간', '영혼', '자유의지' 등의 철학적 주제를 우주적 상상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야기로 펼쳐낸다. 최근 픽션과 논픽션이 교차하고 본격소설과 SF, 판타지가 어우러지는 장편소설 〈운명 게임〉(전2권)을 펴냈다.



자아 실현보다 자아초월
에고의 강한 지배 벗어나
내 안의 순수의식 깨워라

어떤 채널링의 시작

사주팔자가 가리켜 보이는 인간의 운명은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나, 그리고 재(財), 관(官), 인(印). 운명이란 결국 '나'라는 주체가 이 세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업인이 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운명론에 따르면 인간은 결국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간다. 운명은 '내가 나'인 것을, '있는 그대로의 벌거벗은 나'를 가장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박상우의 소설 〈비밀 문장〉은 소설가가 '되려고' 꿈꾸고 애써온 젊은이가 '등단'이라는 제도적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에 절망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는 장면에서부터 출발한다. '조용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몇 가지 의약품'을 은밀하게 구입하여 '자살 칵테일'을 제조한 주인공은, '낮이 끝나고 대지에 소리 없이 어둠이 내려앉은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게 지구라는 이름의 3차원 세계에서 소멸'되고 싶어 한다. 어느 날 안개 속을 헤맨 끝에 자신이 최후의 장소로 점찍어 둔 곳에 도착한 바로 그때, '뇌가 모두 녹아버리고 텅 빈 해골 껍데기만 남겨진 것 같은' 이상한 기운 때문에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 문득 고개를 들고 허공을 보니 십대 후반의 소녀로 보이는 일종의 '에너지체'가 보이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쿄쿄… 쿄쿄… 쿄쿄…"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에너지로 전달되는 메시지였고, 그때부터 다른 차원에서 온 '쿄쿄'와의 채널이 열리게 된다.

에고의 역할과 인생 프로그램

순수 에너지 인격체인 쿄쿄와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 문필수의 인생관은 그때부터 몰라보게 가벼워지고 밝아진다. 쿄쿄는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은 프로그램'이며, 그 프로그램은 스토리로 전개되고 '무한 스토리코스모스'를 이룬다고 말한다. 3차원 우주에 갇혀서 현실과 꿈에 대해 왜곡된 관념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신을 실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차원의 영체가 반영된 투사체로서 10퍼센트 정도의 뇌와 10퍼센트 정도의 표면의식을 사용하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향해 터무니없는 화를 내고 있어요. …이원성의 덫에 치여 있기 때문이죠. 태어나고 죽는다는 믿음, 너와 나는 다르다는 믿음, 오직 이곳만이 현실이고 다른 모든 것은 비현실이라는 믿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나뉘어 있다는 믿음, 가르침과 배움이 따로 있다는 믿음…. 그 모든 게 3차원 세상의 주인인 에고의 지배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쿄쿄에 따르면, 에고는 '3차원 우주에만 존재하는 이원성의 산모'이다. 에고는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자아의 거짓된 정체성이다. 이 거짓 정체성 때문에 실제로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데, 끝도 없이 다시 환생하고 다시 죽는 꿈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자작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지금 이곳의 모든 것이 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3차원의 꿈은 학습 도구일 뿐인데 그것을 실재라고 믿으니 본말이 전도된 고통에 시달리며 자업자득 자작자수의 생을 사는 거예요."

"지구인들이 말하는 '나'는 전체로서의 실재가 아니라 전체 중의 지극히 일부가 반영된 환영이에요. 당신들이 밥 먹듯 사용하는 '나'라는 말도, '자아'라는 말도, '영혼'이라는 말도, 3차원 우주에서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된 게 아니라 없는 걸 있다고 믿는 에고의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2500여 년 전 샤카무니 붓다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무아 사상이 소환되지만,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다. 소설가 박상우는 물질의 기본 단위인 양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틀을 적용하여 붓다의 팔정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증폭시킨다. 사실 현대 과학은 붓다의 철학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과학이 불교의 대변인'은 아닌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이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가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인가가 어떤 고정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물리학은 이미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온(五蘊)이 실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불교 사상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제 다른 스토리를 쓰고 싶다면

쿄쿄는 '3차원의 세계는 물질적 경험을 통해 의식적 진보를 도모하는 훈련장'이라고 말하지만, 주인공 문필수는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훈련장이라는 것에는 수긍한다고 할지라도 왜 그렇게도 수없이 되풀이되는 반복 학습을 해야 한단 말인가?

윤회 학습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뺑뺑이'에 불과하다. 아무리 학습을 위해서라고 해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과거 생의 기억들을 깨끗이 삭제당한 채로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한단 말인가?

문필수의 강력한 항의에 쿄쿄는 이렇게 답한다. "당신은 다른 모든 지구인들처럼 결과만 중시하는군요.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학습은 결과를 전혀 중시하지 않아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는 누구나 다 원천 의식과 하나가 될 테니까요. 우주 학습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이에요. 스토리 전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과의 잉태, 그리고 그것의 성장과 승화 과정을 가장 큰 결실로 보기 때문이지요. 절망을 통해 희망을, 추락을 통해 상승을, 폭력을 통해 자비를, 멸시를 통해 명예를, 증오를 통해 사랑을… 그리고 그 반대에로의 윤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반복 학습장을 왜 그토록 지루하게 오가야 하는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자는 그런 지루하기 위한 싸움을 '자유의지'라는 알량한 이름으로 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인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문필수에게 쿄쿄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 우주에 가혹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은 원천 에너지의 보살핌과 배려 속에서 진행되고, 그와 같은 운행은 육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비육체적인 상태로 돌아가자마자 누구나 곧바로 알게 되죠. 자신이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비로소 깨어났다는 것, 깨어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스토리를 구성하고 싶어 하죠. 이전 스토리의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는 보다 높은 단계의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 작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원하는 단계를 설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다 높은 단계의 영적 존재들로부터 스토리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되죠. 우주의 모든 것은 창조적이지만 그것의 원천이 하나에서 열까지 스토리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있는 그대로 다시 보고, 다시 쓰기

대부분의 인간은 생물학적 상태의 스토리로 태어나 생물학적 상태의 스토리로 죽는다. 생물학적 스토리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토리를 쓰고 싶다면, 자신이 쓰고 있는 스토리에 강력한 의문부호를 제기해야 한다. 지금 자기 자신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스토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생물학적 스토리로 태어났다가 정신적인 스토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탄생'이다.

3차원 지구에 와서 인생살이를 경험하는 동안 헛된 고정관념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 과다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면, 관념화되지 않은 순수의식 상태를 일컫는 '있는 그대로'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자각하게 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면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스토리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이다.

'3차원 시공간은 물질화된 스토리 세계이다. 그 반대쪽에는 잠재적 스토리 세계가 존재한다. 잠재적 스토리 세계는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들의 가능태를 보존하고 있는 정보 저장 공간이다. 정보 저장 공간에는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스토리, 그리고 우주적인 지식과 새로운 우주 창조에 필요한 프로그램 언어가 저장되어 있다.'

'진동하는 우주의 스토리 저장고', 이것을 아카식 레코드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3차원의 잠에서 깨어나 '눈이 열려' 의식의 파동을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아카식 레코드를 열람하여 다양한 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주어지는 메시지도 제대로 수신하지 못해 자기 스토리 전개에 엄청난 애로를 겪곤 한다. 3차원 세계의 인간들은 온갖 다차원적인 신호를 받고 있지만 무절제하고 불안정한 뇌파가 그것들을 차단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에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다.

3차원의 세계에 갇힌 상태에서 에고로 살면서 자기 존재를 뚜렷이 나타내 보이기 위한 욕망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상태라면, 이제는 '자아실현 욕구'에서 '자아초월 욕구'로 옮겨가야 할 때라는 푸른 신호등이 켜진 것이다. 〈작가〉





대행 스님

잘하든 잘못하든 그냥 근본에서 생각나서 한 것은 후회하지 마세요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 지금까지 먹고사는 데 급급해 그동안 인생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온 게 참 안타깝습니다. 퇴임하고 여유가 생기니 이제야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이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는지요.

답변 우리가 옷을 벗었다고 해서, 이 모습을 벗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으면 자기 차원대로…, 아니 내가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배를 갖다가 놓고, 같은 배인데도 크고 작은 것을 가리려고 기계에 넣고선 굴러 떨어지게 합디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굴러 떨어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은 배건만 크고 작은 걸 가려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중간 것은 중간 것대로 놓고 팝디다.

그러니 천차만별의 그 모습들을 죄 각각 놓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습, 그 습으로 인해서 오는 인과, 인연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업이 되는 거죠. 이게 악업이 되느냐 선업이 되느냐. 사랑을 하다가도 어떠한 문제 때문에 헤어지면 악업이 되죠. 선업이 그냥 순간에 악업이 돼 버리고 말죠.

그러니 이 악업 선업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몸뚱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가지각색의 모습을 해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업식의 굴레에서 그냥 그대로. 컴퓨터에 넣으면 그대로 나오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딱, 아주 기정사실로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뺄래야 뺄 수 없고, 끼울래야 끼울 수 없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계성, 세균성, 윤회성, 업보성, 인과성 이 모두가, 거기에 속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몸 안에 들어 있어요. 부인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고,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업식이 있는 거니까 내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죠. 묘한 거는,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인과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 업보성 또는 영계성까지도 모두 종합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입력이 된 대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한 치도 벗어날 수 없게 녹음이 돼서, 그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말려서 그것이 습성으로 돼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모두 살아나가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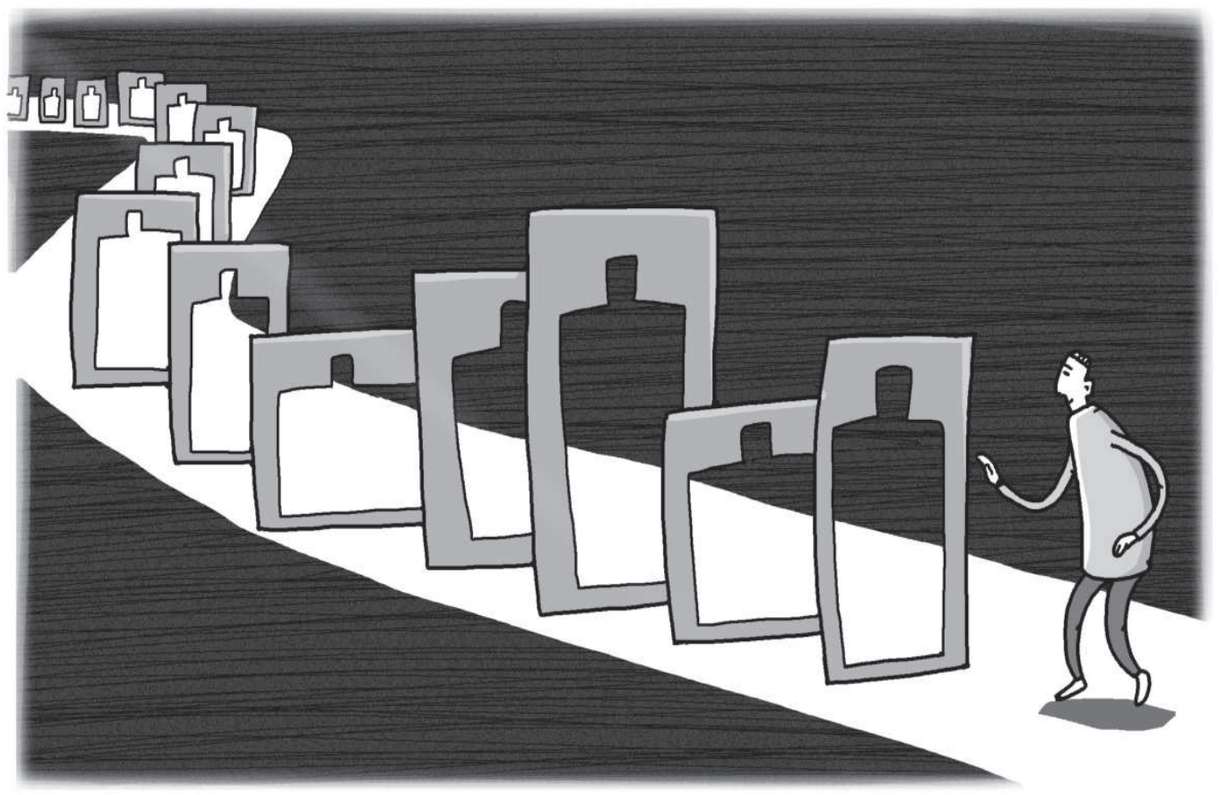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이 입력된 것을 어떡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력이 된 데다가 되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믿고 되놔라. 제 나무는 제 나무 뿌리를 믿어야 되느니라." 했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수분과 에너지를 흡수해서 모두 올려보낼 수 있어서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뿌리, 남의 나무를 믿고 잘 살게 해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건 기복이며, 그건 이익이 하나도 가지 않는 것이며 공덕이 될 수가 없죠.

천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를, 하나로 묶여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같이 살고, 같이 말과 마음이 이어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여래라고 하죠. 그리고 공덕이라고 하고요.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관여가 된 사람들은 전부 모여야 해결이 돼요. 모이지 않곤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모여서 공동 분담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우리가 공(空)해서 전체가 다 이어져서 돌아가니까, 내 주인을 근본으로 치고 그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해서 모두 보풀어져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몸뚱이 속의 모든 중생들이 의식들을 꼭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뚱이가 배라면 내 마음의 선장이 그 자생 중생들을 다 태워 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이 배에 탄 중생들은 다 선장의 그 마음을 따르게끔 돼 있어요. 즉 말하자면 그 마음의 선장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과 작용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악하게 '어휴! 저놈을 죽였으면 좋겠다.' 하면 이 안에서도 '저놈 죽였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쪽으로 음파가 그냥 가 버려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냥 더 마음이 부풀어지면서 '두고 보자.' 하게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의식들이 내 마음 채찍의 다스림에 따라 나가서 마음도 조절하는데, 나쁘게 조절하느냐, 평화스럽고 아주 좋게 해결사로서 조절을 하느냐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천차만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악업 선업의 천차만별의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으음,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놓아야죠. 그러면 통신이 돼서 다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작용을 해 주거든.

그러니까 하시라도 마음을 넓게 가지면서 거기다가 놓으세요. 만약에 꿈을 꾸었다든가, 상대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잘못돼 돌아갈 기미가 보인다든가, 나를 그냥 꼭두각시로 만든다든가, 또는 적대시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기미를 알게 되면,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가 있잖아. 그 마음들과 둘이 아니게 내 마음으로 쓸 수 있게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모든 것을, 신호를 거기다 맡겨 놓을 때에, 이건 의학적이기도 한데, 대뇌를 통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뇌를 통하고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요. 결정을 짓게 되면 하달이 돼요.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요. 통신이 돼서 제각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그때는 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안과 밖으로 다 뜁니다.

그래서 내면의 절차가 다 잘되어 있어야 외부의 절차가 다 잘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면 새지 않느냐'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 내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의식이 바로 내 주인이자 내 하인이고, 내 육체가 또 그네들의 주인이자 바로 심부름꾼이고, 관리인이자 집합소가 되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거지, 개별적인 혼자가 없어요. 모두들 살아나가는 데 내가 했고, 내가 살고, 내 것이고…,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것이 없다면 바로 욕심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벌어 놨다 하면 그게 조금만 없어져도 그냥 안타깝고 그렇지만 더불어 내 거다, 더불어 한마음의 거다 한다면 가지고 다녀도 무겁지도 않고요, 도둑맞을 일도 없어요. 하하하…. 또 생짜배기로 돈이 나가지도 않을 거고요. 모두의 돈이라고 그러는데, 더불어 같이 공유하는 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짜배기로 나갑니까? 그러나 내 거라고 그런다면 무슨 핑계를 대더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죽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저녁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깨는 것과 같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라도 이놈의 돈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요, 전부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놨고, 전부 상대를 놓고 하고 있죠. 참, 그것도 기적이지. 어떻게 그렇게 상대를 놓고 빌게끔, 기도하게끔 만들어 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기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도 말 못 할 일이 생기고, 말도 못 하고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다 그렇지요. 혼자 먼 산 보고 울어야만 하고, 자기 혼자 새겨야 하고, 혼자 참아야 하는 일들이 건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도 혼자 왔기 때문에 갈 때도 혼자 가야죠.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갈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자기를 다시 형성시켜 놓고 자기는 옷을 벗듯이 그냥 벗어 버리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요.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바로 저녁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깨고, 이러는 거와 같은 겁니다.

선, 악을 다 놓으라 하심은

질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선한 행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왜 선과 악을 다 놓으라 하시는 것인지요.

답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부 차원이 달라지고 그러겠죠. 이 '악한 거, 선한 거.' 이 악한 거를 쓸 때는 어떻게 되고, 선한 거를 쓸 때는 어떻게 되나. 주는 거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악한 걸 주면 나쁘다고 한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악한 거는 나쁘고 선한 거는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악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 내가 악한 거를 받는다면 좋지 않으니까 '만약에 너도 악한 걸 받는다면 좋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깐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넉넉하게,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 속상하는 악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 속으로 끓고 속에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 화가 나면 겉으로 "야이, 이 너석아!" 이렇게 하듯, 그냥 웃고 화를 내는 그런…. 웃고 화내는 사람 못 봤죠? 하하하. 그런데 속으론 아무 걱정이 없이 그 상대방한테 그냥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화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상대방이 듣고 그 잘못된 걸 잘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수도 있죠.

그러나 불쑥불쑥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쑥불쑥 화내지 마시고, 불쑥불쑥 '아휴, 인제는 다 죽었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도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것저것 다, 업이다 뭐, 유전성이다 영계성이다 인과성이다 세균성이다 하는 것도 다 그냥, 그냥 다 몰락 놓는 겁니다. 그것 다 버리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한군데만 믿고 오직 그냥 다 그냥 몰락….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텐데 "아, 여기 삼살방이 들었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삼살방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 그렇게 지어 가지고 그렇게 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건 도무지 풀릴 수가 없어.' 한다면 풀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풀릴 수 없다, 있다' 하는 거를 다 제거해 버리고 '그냥 난 너만 믿어. 네가 네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살린 것도 넌데 죽이는 것도 너지, 뭐. 너 알아서 해.' 하고선 거기 다 다 몰락 놓고만 사신다면, 차차 살다 보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구나. 아하! 야 참, 이거 묘하다.' 이렇게 자꾸자꾸 한 건 두 건 알게 돼요. 알게 됨으로서 뿌리가 깊이 박히죠. 그럼으로써 나중에는 아무 데를 갖다 세워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이 살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로 알지 마시고 진짜로 아세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이러는 거는 다 놓고, 놓는다기보다도 놓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사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표현이 어떻게 답답하니까 그냥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냥, 허허허.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언짢게 다가오는 거든지 좋게 다가오는 거든지 그냥 '언짢은 것도 너니까, 너 알아서 다 좋게 해.' 하고선 그냥 좋게, '너만이 할 수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아주 철부지 애처럼 말입니다. 아주 철딱서니 없는 애처럼 말입니다.

철딱서니 없는 애가 막 뛰어가는데 저기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는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요. 그렇게 뛰어가니까 어른이 탁 잡죠. 철부지처럼 그렇게 살면, 자기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철부지처럼 살기 때문에 '저건 철부지니까 내가 뭐, 일거수일투족 다 도와줘야 될 거야.' 하고 다 이끌고 다녀요.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지켜 주고, 이끌어 주고, 온통 해결사도 돼 주고, 그냥 모두,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뭔 이름이냐. 관세음보살도 돼 주고, 지장보살도 돼 주고, 칠성 부처도 돼 주고 그냥 저 주해신도 돼 주고, 주산신도 돼 주고…. 모두 그냥 어떤 거 안 돼 주는 게 없이 다 응신으로서 돼 줘요.

근데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하는 척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 돌보지를 못하죠. 저거는 잘났다니까 잘난 대로 살게 그냥 두지요. 그냥 아무 철 없이 낭떠러지가 돼도 그냥 그 한군데만 믿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다 이렇게 잡아 줘요. 그러나 자기가 안다고 아만, 아상을 가지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누가 거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그저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음이에요.

> 우리가 이것저것 다 버리고
>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 업이다 유전성이다 영계성이다 세균성이다 하는 것도 다 몰락,
> 자기 근본 자리 한군데만 믿고 오직 몰락 그냥 다 놔 버리세요.

지구상에 여러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질문 지금 지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로 집단 사망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도 모두 부처님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어떠한 분야든지 불법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다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게 본다면 "스님이 그만큼 아신다면 경제 문제나 모든 일을 발란하게 하시지 왜 못 하십니까?"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이거는 모두가 각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생존경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면 저기선 저렇게 일어나고, 여기서 지배를 받는다면 저기선 지배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지구가 집이라면 몇 사람이나 그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생존할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모두 성장이 되거나 낙오가 되고, 또 성쇠가 되는 까닭에 지구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끼 한 마리를 기를 때 그 이듬해가 되면 금방 열 마리 스무 마리가 되고 수가 없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연쇄적으로 잡아먹지 않는다면 그냥 그냥 불어나죠. 먹고 살기도 어렵거니와 모든 물자도 참 빈곤해지는 결과가 될는지 모르죠. 자연법칙으로 '너희가 마음을 넓게 쓰면은 살아날 것이고, 넓지 못하다면 죽을 것이다.' 하는 양단간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만약에 선생님이 저기 지나가는 놈 따귀를 한 대 때렸다면 말입니다, 맞은 놈이 그냥 푹 쓰러져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덤비고 거기에서 못 이기면 내일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혼란 속에서, 경쟁 속에서 돌아가는 거지요. 굶주리고 먹고 죽고 하는 것이 개미들 살림살이나 우리들 살림살이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좀 덩치가 크다 뿐이지, 살림살이의 용도가 좀 틀리다 뿐이고. 아, 왕개미, 검은 개미, 붉은 개미가 싸움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냥 토굴을 다 뺏고 먹을 거 다 그냥 압수하고 그러니까 산산이 흩어져서 모두 날뛰는데, 흙에 묻혀 죽고 다리가 잘려서 죽고 병신이 되고 온통 이러는 걸 봤습니다.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선 굶어 죽는다, 또는 비가 안 와서 죽는다 이러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고 그런 것이지, 일리가 없다면 부처님 법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음을 넓게 써서 세세생생에 자유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천세계가 있고 중천세계가 있고 하천세계가 있습니다. 벌레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땅 위로 다니는 세계가 있고, 날아다니는 세계가 있고 또는 그 모두를 종합해서 자유스럽게 사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의 정신세계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하고 가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를 발견하시라 이거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모르더라도 이런 말을 한마디 들어 두신다면 언젠가 그런 일이 다가올 때 그 생각이 문득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한 것은 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생깁니다

질문 주인공에 맡겼는데도 어떤 일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가끔 후회되는 일이 생깁니다. 맡겼다고 했는데 제 사량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서요. 정말 제대로 믿고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이게 여러분이 아리송해서 몰라서 그러시지,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그냥 거기서 생각나서 한 것은 후회를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자기 성품 속에서…, 그릇이 작은 데서 나왔든 큰 데서 나왔든, 잘못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잘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모르니까 그냥 그 마음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잘 보고 잘 듣고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게 그만 그렇게 잘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땐 '아이구,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거를 이럭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알아지는 게 있죠. '이건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앎이 생기죠.

그러니까 잘못 나왔든 잘 나왔든 그것이 우리 인생관에 의해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즉 말하자면 잘 배우게끔 이끌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잘 생각을 못해서 내가 이렇구나. 잘 생각을 할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하지 마세요. '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움이, 느낀 것이 참 많았다. 경험이 많았다. 그러니 이 경험을 준 것도 참 감사하구나.' 하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구덩이에 빠지게끔 하지를 않아요. 모를 때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게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서 심안으로 이렇게, 육안을 통해서 보게끔 만들거든요. 심안으로 듣게끔 만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주, 잘못됨이 없는 그런 진로로 이끌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서 해라, 해라 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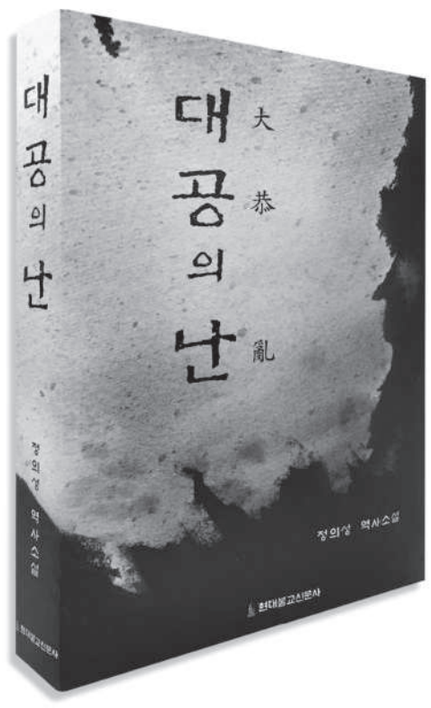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 성품은, 그렇게 쓰는 성품이나 이렇게 쓰는 성품이나 성품은 둘이 아니에요. 마음 내기 이전은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죠. 그런 거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둘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너로 인해서 경험을 얻었으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 감사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육안으로 보게끔 하지 말고 심안으로 보게, 네가 보고 네가 할 수 있게끔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족하죠. 그 성품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도 거기서 나오고 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 현불 논단 |

국자 같은 삶을 살겠는가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사람 이외 존재들은 대체로
자기 현실 영역서만 살아가
지구 건너편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고 슬퍼한 건 사람뿐

국자가 국 맛을 알지 못하듯
고정관념 속 세계서 살거나
세상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세간에 살든 출세간서 살든
세상 맛을 알아야 참 수행자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이유는 그 마음의 작용이 넓고 가이없는 까닭일 것이다.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품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지구와 태양계를 비롯하여 온 우주를 다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

사람 이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현실적 영역 안에서만 살아간다. 그들의 발자국과 그림자가 미치는 범위가 그들의 세상인 것이다.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얼마나 열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옛 스님의 법문에 '마음이란 크게 쓰려고 하면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넉넉한 여유가 있고, 작게 쓰자면 바늘 끝 하나도 세울 자리가 없다' 는 말씀이 이런 것이다.

때로 지구 저 건너편의 기쁜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느 곳인지 알지도 듣지도 못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연민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한없이 넓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열린 감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다.

물론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발자국과 그림자 안에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마음도 감각도 다 통제하고 억압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국자의 비유'를 들어 깨우침을 주신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이를 친하는 것은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이 아무리 오래도록 가까이 하여도 그 법을 알지 못하네. 어진 이가 지혜로운 이를 친하는 것은 마치 혀가 음식 맛을 알 수 있듯이 비록 잠깐동안 가까이 하더라도 참다운 도의 뜻을 아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만 자신과 자기가족의 이익과 안락만을 위해서 살뿐, 세상을 향한 눈과 귀를 닫고 모든 감각을 막아버리고 냉담하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국자'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로 보면 온통 성현의 말씀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안전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따뜻하고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지는 일들이 적지 않은데, 어째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국자같은 사람이 되어가서야 되겠는가.

백 년을 살더라도 국자처럼 무감각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오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다만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사는 의미와 가치를 터득한다면 무슨 미련과 아쉬움이 있을 것인가. 본래 국자 같은 사람도 혀 같은 사람도 없다. 자신의 마음과 감각을 열면 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음과 감각을 닫아버리면 국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흔히 스님들을 '부모형제와 세상을 버리고 출가한 냉정한 사람' 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다.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떠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출가한 것이며,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깊은 자비심으로 중생제도의 서원을 품은 따뜻한 사람들이 스님이고 출가인이다.

수행자는 국자같이 무감각하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삶을 떠나 진정 세상의 아픔을 느끼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선 사람들인 것이다. 실로 세상에 살거나 산중에 살거나 달고 짜고, 쓰고 맵고, 시고 떫은 세상 사는 맛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이다.

社 說

만일결사로 코로나 극복을

일반적으로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21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1만일 동안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하루하루 일상 속에 쌓여 습이 되고 성격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삶 그 자체로 습합될 것이다. 1만일은 개월로 환산할 경우 27년 5개월에 달하는 긴 시간이다.

불교에서 기도를 할 때 삼칠일(21일), 100일, 1000일 등 기간을 정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매일매일 지속하는 기도의 힘으로 삶의 변화를 이끈다는 의미가 담겼다. 불교계에서 진행 중인 만일결사에 새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90년대 정토회와 전국염불만일회를 비롯, 각 사찰이 만일결사에 돌입했다. 한국불교 신행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불교를 주창하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기에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만일결사는 여전히 지속 중이다.

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비대면 문화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만일결사는 이제 일상 속 수행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간의 제약 또한 없다. 각자의 공간에서 결사에 동참하되 함께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결사도반들이 원력을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루가 모여 100일이 되고 100일이 모여 1000일이, 1000일이 모여 1만일이 된다. 한가지 결사를 선택해 하루 30분, 1시간이라도 실천한다면 100일 뒤, 1000일뒤 삶은 예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 모두가 힘든 시기. 한국불교 전통을 잇는 만일결사로 나와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발을 내딛어보면 어떨까.

기후위기, 제대로 대응해야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 국회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 정책적 토대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그간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을 들으면서도, 대응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한국의 과거에 비추어 본다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작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환영보다 우려와 비판이 많다.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며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던 단체들이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미덥지 않다는 시각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눈가리고 아웅식 대응' 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다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의 중요성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제도와 정책으로 탄소중립을 꾀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 차원의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기에,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국민 개개인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관중심으로 구성했고, 국회는 탄소중립법안을 비공개로 상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졸속추진' 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급격한 변화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 내는 토대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관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이 보다 효율적일 수는 있다. 반대로 졸속행정으로 인해 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관이 협력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남방불교의 우안거

마하위하라는 7월 보름부터 우안거(왓사와소, Vassāvāso)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안거는 남방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동안거, 하안거와 같습니다. 한국은 1년에 2번 안거를 지내지만 남방에서는 한번, 3개월 동안 우안거를 행합니다. 동남아에서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없기에 우기에 행하는 우안거가 중심을 이룹니다.

빠알리어로 우안거는 왓사와소(Vassāvāso)라고 합니다. 인도 및 동남아 등의 불교 문화권에서는 우기에 수행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 기간에 스님들은 자유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불교도(비구, 비구니)가 안거를 지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안거를 지내지 않으면 계를 어기는 것이며 안거를 지내야 스님으로서 법랍이 올라가게 됩니다.

매년 아살히(Āsāḷhī)달의 보름(포살) 다음 날부터 우안거가 시작됩니다. 곧 매년 비구, 비구니들은 대략 7월경 ~ 10월경까지 3개월을 한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외출은 허용하지만 반드시 그다음 날 새벽 동트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찰에서 외출할 때 무조건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율장에 의하면 전달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우안거에 7일간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동료들이 아플 경우, 비구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동료를 도우러 가는 경우, 법계로 인해 걱정하는 비구를 도우러 가는 경우, 잘못된 견해에 빠져든 동료를 바로잡기 위해 가는 경우입니다. 아살히 보름날 우안거를 전기 우안거라고 합니다. 그 때 참여 못 한 스님께서 한 달 뒤에 우안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후기 안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님께서 까티나(kaṭhina, 가사공양)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가자들이 '후기 우안거를 지낸 스님들에게도 가사를 보시하겠다' 고 하면 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언급이 없을 경우는 주어도 받지 않거나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거(安居)를 지내지 못하거나 안거가 깨지는 경우에는 가사를 보시하는 '까티나 치와라' 법회를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안거를 깨면 그릇된 행위(惡作, 둑까따, dukkaṭa)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해 동안 비구 계율을 드릴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우안거 전 날에 저녁에는 마을 신도들이 사찰에 모여 앞으로 3개월 동안 우안거에 들어감을 청하기 위해 가사를 만들 옷감을 보시하며 초대합니다. 그 다음 날(보름) 낮에 비구들이 모두 포살당(布薩堂)에 모여 포살의 의례를 행합니다. 그 이후 사찰에서 법회를 열어 스님께서 안거에 대해서 설법하며 정진을 다짐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도들 중에는 계를 받고 같이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에 신도들은 스리랑카와 동일하게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주말에는 스님들께 공양올리고 저녁 때 예불 후에 차 공양 올립니다. 직장인들은 안거기간 평일에 공양은 직접 못 올리지만 공양금을 보시하는 방식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저녁 예불 시간에 축원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로 지난해에 온라인으로 예불과 축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소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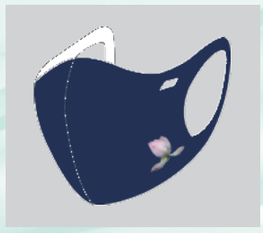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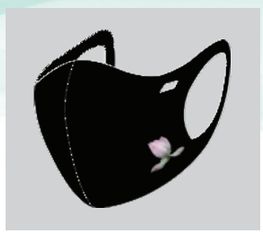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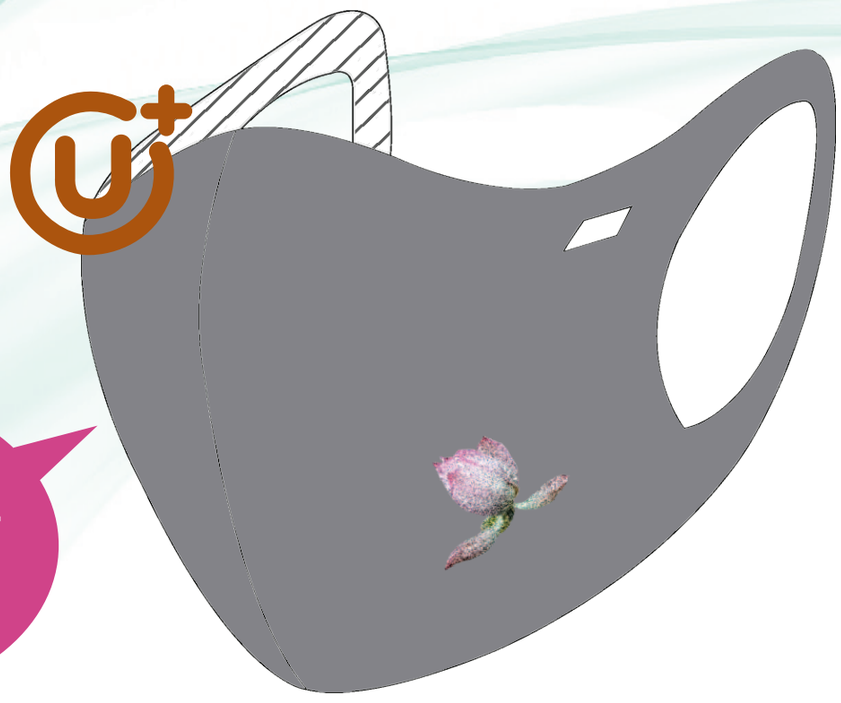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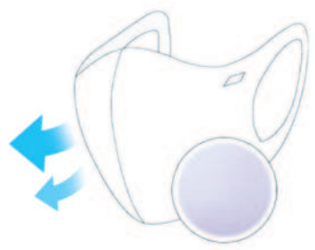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색상별 1세트 (100장)

~~550,000원~~ →

350,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여름용 쿨 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최소주문수량은 색상별로 100장 이상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